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15호 2020년 7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용남 편집인: 오치주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뉴욕개막

2020년 8월 21일 (금)~23일(일)

더블트리 by 힐튼 호텔 NJ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관련내용 P2-P3>

인종차별 반대시위 속 미국을 보며

‘인종’ 넘어 ‘인류’ 를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기억되거나 독특하게 조명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미국의 남북통일을 이끌고 노예해방에 앞장 섰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미국 진보의 상징이었던 젊은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lson Reagan), 흑인 인권 변호사 출신의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그리고 사업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지금의 트럼프(Donald John Trump)로,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사람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그 초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 된 것이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 미국을 꿈꿨을 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는 평등과 자유가 펼쳐진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일까? 역사 속에서 오바마 역시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아닌, 한 미국인으로

남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평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은 어쩌면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차별이 가져온, 늘 있어왔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시 미국 땅에 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종문제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일일이 나열 하기에 그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울 만큼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와 그 가족의 인생은 그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어 왔기에 그 심각성은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나갈 것인가.

흔히 미국의 주류와 그들의 문화는 바뀌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그 변화하지 않던 역사 속의 난공불락(難攻不落)은 정치와 경제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와 생활까지 바뀌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단장 장수인. 음대 76)가 두번째로 시도하는 가상연주회에서 B Rossette을 연주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은 "Harmony to the World" 로 미국의 평화시위에 보내는 평화와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

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한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크게 바꿔나가고 있으며, 비주류 문화는 이미 음악과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크게 바꿔놓은 주류문화로 변화되고있다. 세상을 뒤튼들어 놓은 Covid-19 사태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방역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미국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미국인이거나 한국인 이중국적자일 것이다. 우리

는 아직도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의 업무를 볼 때에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종종 겪고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서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위와 폭동이 나오는 상관없는 '흑인'들의 반발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바뀌 나가야할 '미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편집자 주>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회장초청인사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뉴욕개막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온 세계를 뒤흔들며 인류의 영존과 번영을 시험하듯 무참하게 일상을 지배해온 지도 어린 4개월을 넘겼습니다. 지난 주, 제 29 차 평의원회의가 개최될 호 텔 소재지의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 행 정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해간다는 고

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5 대 임원들과 Zoom 회의를 통하여, 주요 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정대로 금년 8월 21 - 23일 (금토일)에 개최하기로 의 결을 모았습니다. 현 행정명령 하에서도, 행사개최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감 에 따라서 7, 8 월에는 규제가 더욱 완화되 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거리 항공 여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zoom 을 통하는 화상회의를 생각해 보았 으나, 지역 동창회 차원에서의 행사와 달 리 다양한 행사와 액티브한 토론 진행의 필요성 그리고 미지역 동문들의 교류 및 친목도모의 목적을 감안하면, 그 방법은 적합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예년에 못지 않은 훌륭한 강사들의 세미나 및 주제 강사를 섭외 준비 중이며, 동창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음 선을 넣어, 자원자 위주로 미주에서 유명 한 Links Golf Course 에서의 골프 Outing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스트레스도 한번에 날릴수 있는, 제 29 차 평의원회의에 많은 평의원 및 일 기원전 4세기의 북부 그리스의 마게도니 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갑작스런 선 왕의 서거로, 약관 20살에 보위에 올랐습 니다. 왕 위에 오르면서,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13년 재임하는 기간 늘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동방 원정 전쟁을 통해, 페르 시아를 넘어 인도 서부까지,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지를 넓혀가며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역사 속 제 일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젊은 정복자,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대열 선봉에서, 공포와 두려 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용기 를 북돋우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어 갔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세 계를 제패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여러분, 역경을 극복하고 함께 모입니다. 우리 미주동창회의 자부심인 제 29 차 평 의원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남 회장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2020.6.17.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 한국총동창회 소식 /

이희범 회장 공식 취임

박희백 원장 등 3명 관악대상 수상자 선정 21대 국회의원 103명 당선 축하행사



이희범 한국 총동창회 회장

서울대 총동 창회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대 총 동 창회 2020년 도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과 국 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행 사를 열었다.

이날 지난 3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 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제28대 회장이 로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1971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를 거쳐 73년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 공했다. 서울산업대 총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LG상사 부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사대부고를 나와 1971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 제12회 행정고시 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산업자원부(현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LG상 사 부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당초 2월 회장추대회의에서 회장직에 추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기총회가 연기 돼 공식 취임이 미뤄졌다.

이날 제22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박희백 박 희백정형외과의원 원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박명윤 한국보건경영연구원 이사장을 선정했다. 관악대상은 1999년 제정돼 매년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큰 서울대 출신을 선 정해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박희백 원장



허진규 회장



박명윤 이사장

또한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동문 103명을 위한 축하의 시간도 가졌다.

당선된 동문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합해 59명,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합해 35명이었고 무소속이 4명, 열린민주당 이 3명, 정의당이 1명, 국민의당이 1명이었 다. 가장 많은 당선인을 낸 단과대학은 법과 대학이다. 학부 21명, 대학원 수료 2명의 당

선인이 나왔다.

학부 기준으로 사회대(19명), 인문대(6명), 농 생대(5명), 사범대(5명), 공대(4명)가 뒤를 이 었다. 경영대와 생활대, 자연대에서도 1명씩 당선인이 나왔다. 특별과정 또한 법대 최고 지도자과정(ALP)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8명) 이 나왔다. 행정대학원은 대학원 출신 4명, 국가정책과정(ACAD) 출신 6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납부방법
우측의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제29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Table with 3 columns: 8월 21일 (금), 8월 22일 (토), 8월 23일 (일). Rows include registration, meetings, and golf outings.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20년 8월 21일(금) ~ 23일(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호텔예약안내 *(8월5일까지 예약)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20년 8월5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
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
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최용렬 이사(201-582-5214/ CP 201-
615-0102)
②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
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code에 B01 을 타입하시고 enter key 누
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 도착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
는 우버를 이용,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최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 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도
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버
가 전화로 연락 줌
■응급상황이나 문의 : 연영재 사무총장
, 201-233-7108 / 문현호 총무국장, 646-
770-7028



김해암 (의대 53)

/ 정신과적 분석 /

코비드 팬데믹과 인간의 정신건강②

<지난호에 이어서>
 프로이드가 창안한 정신분석은 카테시안의 2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현상을 밝혀 내고 철학을 초월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발전을 시도하였다. 한편 데칼트르는 나무의 뿌리와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어떤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다시말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과 평안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이다. 노이로제로 표현되었던 불안감, 갈등과 우울은 외적인 환경과 신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크게 문제되는 것은 무의식보다도 의식과 정신집중을 요하는 일에 압도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용하여 현실의 정확한 의식화와 더불어 정신집중을 치료 구심점을 두려고 한다. 인지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이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로렌츠의 저녁에 둘러앉아, 돌아가며 100개의 즐겁고 무서운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아량을 보여 주었고, 1600년 후에 점차 일어난 르네상스부터는 인간성의 희망찬 사랑의 노래, 오페라, 교향악이며 예술의 미를 통하여 인간의 끈질긴 희망의 갈급함을 길러 왔다. 현실의 재앙을 당하며 인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휴가 아닌 휴가를 즐기는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무엇일까? 사람들이 모두 불안과 우울에 잠겨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아니면 심한 노이로제 때문에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되어가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음을 본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집을 나가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있다. 자유의지로 강권을 시행하지 않고도, 또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며 동물과 자연을 귀히 단치로 등이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래, 전쟁 게임이며, 스포츠도 좋아하며 다치거나 죽음을 무서워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동물을 사랑하고 사냥을 좋아 한다고 했다. 치료가 시작한 한달쯤 후에 나는 "왜 군대 생활이 싫으냐"고 물었다. 자기는 자기 형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 가니, 다른 길을 가고 싶었는데 왜 그런지 무거운 죄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신부님에게도 가서 고해성사도 시도했으나 도움이 안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다. 나는 그 청년의 고민에 동정이 갔고, 내가 그 사람이란 정도 그는 평화를 사랑할 뿐 아니라 집안의 전통도 사랑하지만 자기는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필립은 현명했다. 그의 이론은 정현했다. 현대 전쟁에는 용맹이나 완력 보다는 지혜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므로 비롯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이므로 필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며,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서도 우리는 인간애, 박애정신이며, 인내심을 하루 생활권에 있는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인류 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나? 서양의 문화가 수 천년의 회람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당시 헬레니즘은 인류전체의 대표적 문화였다. 그들은 인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찬란한 신전을 짓고 남신과 여신을 갈라놓고 인간사회의 모순을 탈피한 신화와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간들과 희망 신들과의 사이는 절충할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신들은 아름답고, 힘세고 그리고 영특하고 영생을 사는 특혜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인간들이 가지는 수명과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자기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신들은 그런 인간성을 그렇게도 부러워 했으나 결국에는 인간도, 신들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전들과 찬란했던 예술도 함께 망하여 로마인의 노예가 되어 천년 가까이 번창해오던 헬레니즘이 끝나고 말았다. 로마제국의 천년 왕국도 끝내 망하고 종교 중심의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였다. 종교, 예술 그리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문명 초기에서 불어 내려오는 부조리를 유태교 신봉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온갖 다신교들이 동서양에서 뛰쳐나와 유일신교인 유대교를 더 좋게 발전시키려 했지만 신교도, 카톨릭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를 능가하지 못한 채로 많은 전쟁과 갈등을 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현대에 와서 개개인의 죄의식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보다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치료로 탈바꿈 했듯이 우리도 이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부부, 가족관계, 사제간, 친구간, 이웃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창조해나가야 인류는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나는 종교적 말세감보다는 신이 보내주는 인간개조의 기회로 여겨지며 단죄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신의 형상보다는 구원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한편 무섭고, 슬프지만, 또한 신기롭기도하고 웅장스러운 인간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게 존재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프로이드 정신분석, 현대 인간관계 해결의 치료로 탈바꿈

가족, 친구, 이웃간 존중하는 문화가 '인류 존속'의 열쇠

게 아껴주는 사랑이 윤희고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또 노동, 지식계급의 시민들이 모두 환경을 얼마나 악용해 왔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펼쳐지고 있다.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 뉴욕시 서북쪽 교외 Pearl River office에 19세의 백인 남자가 찾아 왔다. 필립은 멋진 옷차림에 현철한 키의 지능적인 미남자였다. 찾아온 이유인즉 백인 정신과 의사는 자기를 잘 이해 못할 듯 하여, 오래생각하다, 동양인인 나를 찾아 왔다고 하였다. 필립의 집안은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인데, 이민 온지 수 세대가 지났으며 집안 가족은 엄격한 군인집안으로 아버지 쪽으로 장군이 여럿있으며, 1-2차 대전에 유공자가 여럿있다고 하며, 자기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형제 친척들이 남자면 모두 어려서부터 military school에 다니고 자기 형도 사관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군대 훈련도 좋으나 전쟁은 절대대로 참여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노라고 했다. 자기 아버지도 삼촌도 다 군인 출신으로, 어떤 성격인데 자기가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실망 할 것이 뻔하며 화를 낼 것 같다고 하며 어쩌면 좋으냐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니, 동성애 인도 종교적인 평화 운동가, 퀘이커도 아니고 연애하는 애인의 영향

이렇게 정신치료를 대한 수많은 학설과 방법은 20세기 하반기에 많은 정신문명의 기반을 흔들며 놓았다. 또 정신분석의 치료방법과 심리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사고의 전개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신분석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높이 평가 되어왔는데, 왜 프로이드가 노벨상을 받지못했나 하는 의문이 있었다. 물론 수상 대상에 올라 과학 부문이 아니면 문학상을 대상으로 시도했으나, 결국 낙방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프로이드의 학설이 과학적으로 실험과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가설에 불과하며 실제로 인간의 의식구조(의식, 무의식)나 인격의 조직(이드, 이고, 수퍼이그)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공헌이 인류문명에 지대한 영향은 주었지만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정신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뚜렷하게 공격성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쟁으로의 태세는 여전하고 이 질병 때문에 추축할 뿐이다. 이런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희망을 얻겠느냐? 하는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하나의 독특한 인간의 특성은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희망은 믿음을 놓고 끈질긴 투쟁을 가져온다. 1340년대에 유럽을 휩쓸던 페스트의 창궐과 죽음의 와중에도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10명의 젊은이들이 프



차민영 (의대 76)

/ 트럼프 대통령께 올리는 글 /

Would the US win the World War III against the Covid-19 virus?

Dear President Trump,

I would first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you and your executive team members for the fight against the Covid-19 Corona Virus.

However, the rapid spread of this deadly virus has put fear to the world and to the citizens of the U.S.A.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offer my suggestions which I believe can possibly defeat this horrifying virus, as a physician and the president of Seoul Medical Group.

As of yesterday, the U.S. ranks number one in terms of the infected population count of this virus. We must take drastic measures now to avoid, the level of spread as is currently being seen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for the remaining less infected areas of the nation. I project to see at the minimum 200,000 to 300,000 people in the U.S. may be infected within the next two weeks. At this rate, both the infected population and casualty count will uncontrollably increase, and it will lead us towards the worst major economic downturn since the great depression. As we all know, we must enforce a complete lockdown and social quarantine coupled with the speedy treatment of infected patients.

As you may be aware,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ydroxychloroquine and Zithromax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For this reason,

you have instructed a major clinical trial to be implemented in New York. However, it will at least take 4 to 6 weeks to complete the clinical trial and another 2 to 3 weeks for FDA approval. During these crucial weeks, the rest of the areas in the nation will continue to suffer and will experience a sharp uprise in casualty.

Mr. President, I respectfully request to expand this clinical trial throughout the Nation, at least to major cities such as Los Angeles. This action will not only save many lives but also lead to the dismissal of lockdown orders, and ultimately the rapid recovery of our economy. Once again, it is my humble opinion that the above treatment is the best option that we currently have. As you may agree, the vaccination for the Covid-19 virus will take at least a year or longer. The time is of the essence at this point and we can no longer rely on the lengthy step by step approach.

As a physician, I am pleading for your mercy to stop this unprecedented catastrophe and I trust that you will do the right th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sideration.

Yours truly,

Min Y. Cha, M.D.
 Min Y. Cha, MD
 CEO of Seoul Medical Group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8.15 광복절 특별원고 모집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암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8.15 광복절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주 서울대동창회에서는 불의와 암체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전해줄 소중한 글을 모집합니다.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의 내용 8.15 광복절에 대한 의견이나 기념할만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글의 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원고 마감 2020년 7월 10일(토)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백신 나올 때까지 생활예방이 최선”

포토맥 포럼, 서윤석 박사 초청 유튜브 강의

매달 다양한 주제의 교양강좌를 실시해 온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목·공대 59)이 이달의 강좌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며 온라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영목(공대 59) 서윤석(의대 62)

포토맥 포럼은 11월 3명의 전문가를 초청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튜브 온라인 월례특강에서 서윤석 박사(의대 62)는 “예방질환관리본부에서는 내년 1월초나 돼야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종교활동, 건강을 위한 운동, 예술활동(음악, 문학, 독서, 글쓰기 등)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 감염 경로와 예방책, 환자들의 증상, 세균에 감염된 신체의 반응, 안토니 파우치 연방질병관리본부 소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소개도 곁들여졌다. 내달 강좌는 박정혁 교수(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Robotics, AI, Medical Application’에 대해, 8월에는 장수영 박사(전 포항공대 총장)의 ‘미국 건국과 미국 정치 발달사의 토착이 예정돼 있다.

포토맥 포럼에서는 서울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82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방도 마련 ‘사회적 거리는 두고, 마음의 거리는 좁히기’가 나서고 있다. 이영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4월 강좌를 건너뛴 수 밖에 없었고 5월 14일로 예정됐던 윤세영 박사의 ‘인공지능’ 강좌도 7월로 미루게 됐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온라인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7월: 인공지능-조지 워싱턴 대 박정혁 교수 8월: 미국 건국과 미국 정치 발달사-장수영 교수 (전 포항공대 총장)

이달 강좌에는 송수 씨의 ‘너싱홈을 중심으로 본 코로나19 사태의 현주소’, 강수상 박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적 관점에 대한

이중핵심으로 실시된 위약 비교 연구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었다고 소개했다. 두번째 발표자 홍성선 동문(약대 72·약학 박사·현 Olive View UCLA Medical Center 근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촉에 의한 전파에 관한 측면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LANCET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아울러 연구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또 현재 CDC(질병통제국)나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CoVid-19가이드라인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는 초기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이 과학자들도 자기의 세세생생 결론 약속 이야기를 했다.

<출처=시애틀 한국일보>

종신이사 추대



민병곤 전혜경 부부 (공대 65)(문리 67)

민병곤 종신이사는 서울 공대 토목과를 졸업, Lockheed Martin Space에서 복합재료 책임연구원과 통신위성 상업용 Advanced System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일했다. 컨설팅회사(Nubron Inc.)를 설립, Loral, Boeing 등에 시스템 및 경영자문을 하였다. 논문, 컨퍼런스 발표, 특허 등 100여편의 저술이 있다. 육군중위로 제대, 서울공대 조교로 재임중 Brown대학원 연구장학생으로 초청되어 1972년 도미, 학위를 받고 Cornell 대 재료과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 Cornell 응용역학 및 우주항공과 강사를 했다. 재미 한국 과학 기술자 협회 (KSEA) 북가주 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혜경 종신이사는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Fairchild Semiconductor R&D Staff Member로 시작해서 National Semiconductor 반도체 공정개발과 생산 모든 과정을 manage했으며 SENIOR DIRECTOR로 은퇴했다. 반도체 공정에 관한 특허 3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문리대 화학 학사로 졸업후 Brown대에서 X-Ray Crystallography 분야의 연구로 물리 화학 박사를 취득했다. Cornell University에서 Post Doctoral Fellow로 일한 후 남편 민병곤 종신이사를 따라 북가주의 Silicon Valley에 정착,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최지원 (의대 61)

최지원 종신이사는 61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전문의이며 미국에서 개원하였다 1999년 은퇴하였다. 의학재학시절부터 한강 백사장의 천막촌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활동(말발모임)을 꾸준히 하였고 한인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전도에도 힘썼다. 미 내과 전문의 이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했으며 민족화합기도운동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뉴욕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뉴욕 평안도민회장과 평통위원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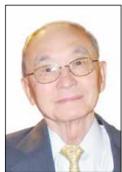


이홍표 (의대 58)

이홍표 종신이사는 서울 의대를 졸업했으며 1976년부터 Harbor City의 카이저병원 심장내과 Chief로 32년간 재직한 명망 높은 심장내과 전문의로, 은퇴 후에도 심장의학계에 영향을 준 동문이다. 이 박사는 사우스베이 카이저병원 심장내과장으로 32년 동안 재직하면서 수많은 심장수술을 집도한 심장전문의로, 심장박동기 수술에 필수적인 ‘세이프 시스’ 의료기기를 발명해 심장박동기 수술에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고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일훈 (의대 51)



김일훈 동문이 6월2일 소천하였다. 김 동문은 1957년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Chicago, IL에서 내과 전공의로 활동하다 은퇴하여 Glenview, IL에 거주해 왔다. 김 동문은 Chicago지역과 한인의 사회 Journal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Euthanasia(안락사)를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하에 두 딸과 아들이 있다.

(고) 곽운태 (문리 50)



곽운태 동문이 2월6일 향년 91세로 소천하였다. 곽 동문은 1950년 서울대에 입학하였으며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 입학 학사(BSBA),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Daniels College of Business 와 University of Denver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 하는 등 42년간 연구 및 교육자로 봉직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1957년에 결혼한 미망인 Sandra Kay, 1남 2녀 등이 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장동만의 세상살이



장동만 (문리 55)

조희 (회원 2천 여 명)도 사정이 이와 비슷하다. (사망 5명->22명=4~5배).

MY NOTE

사망 5배 暴增, Covid-19 때문인지는 확인되지는 않고있다. 그러면? 이 땅 (타국)에서 노인들이 하루하루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마음에 짝이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 어찌됐건,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 세상 인생 황혼길의 서글픔/수슬픔이 밀물처럼 몰려와 눈물을 흘리게 한다.

FACT

NY 한인노인상조회(회원7천여명) 회원 125명이 지난 한 달 (03/21~04/ 20) 사이에 사망했다. 이는 매달 평균 23명이 사망한 것 보다 5배이상 늘어난 숫자다. NJ 상

“화상강연으로의 만남”

남가주 동창회, 문학·의학 등 ZOOM 세미나

남가주 동창회(회장 민일기 약대 69)에서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동문들이 대면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대신했다. 행사는 총 50여명이 참여, 동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즐거움도 함께했다.

첫 강의는 5월2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김지영(사대 69) 변호사의 ‘피천득의 오월, 그리고 푸른춘추인 만나는 명장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리키이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천나무의 바늘 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김 동문은 “피천득 선생께 직접 배운 인연으로 50여년이 지나 선생님 글을 읽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며 로미오와 줄리엣의 짜릿한 첫 키스, 이몽룡과 성춘향의 19금 첫 대화, 신타르타와 카말라의 현명한 첫 만남, 그리고 미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세생생 결혼 약속 이야기를 했다.

6월 12일에는 미주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특성과 치료: 그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시간 45분간 계속된 이날, 민일기 남가주 동창회장(현재 Western Univ. 약학대학 교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질환 및 치료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살아 있는 생명체에 기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계적 유기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 FDA의 신속 허가를 받은 항바이러스제 Remdesivir에 관한 무작위배정 및 이중맹검으로 실시된 위약 비교 연구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었다고 소개했다.

두번째 발표자 홍성선 동문(약대 72·약학 박사·현 Olive View UCLA Medical Center 근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촉에 의한 전파에 관한 측면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LANCET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아울러 연구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또 현재 CDC(질병통제국)나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CoVid-19가이드라인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는 초기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이 과학자들도 자기의 세세생생 결론 약속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모든 연구는



설정된 가정과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이호진(간호대 74, 현재 LA County 보건국 공중보건간호사 (<PHN: Public Health Nurse>)) 동문은 “정부 당국의 CoVid-19 관련 업무”를 소개했다. 먼저 현재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진단검사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중 취약자로 구분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약자라 함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업 종사자, 소매업소 직원, 택시운전자, 배달직원 등이라고 했다. 특히 LA 카운티 정부는 Nursing Home의 취약함을 투입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엄중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 세 동문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질의 응답에는 김자성(의대 79-MD·현 LA 김자성 정신과병원 원장) 동문도 패널에 합류하였다.

다음 화상회의는 7월2일 개최되며, 강호석(상대 81·감사) 동문이 “코로나 사태와 세금 혜택”을 주제로 강연한다.

민일기 회장은 앞으로도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 참가한 50여 동문들은 7월의 회의를 기다리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다음에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회장 민일기: 562-547-2110 / 총무국장 홍성선: 818-636-3680>

www.snuaa.org

서울대학교미주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인선위원	위원장: 윤상래 연락처: 978-386-5510	신응남 회장 646-523-9606	노명호 차기회장 626-667-5385
-------------	--------------------------------------	------------------------	--------------------------

이용락(시카고) | 황호숙(미네소타) | 손재욱(필라) | 정평희(워싱턴D.C.)

제 17대 회장 (2023년 7. 1. - 2025. 6. 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2020. 12월 31일 차차기회장추천서 접수 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출마공약을 발표
- 2021년 6월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확정

근거규정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부고/

마지막 길도 동문, 모교 사랑 실천

(고) 광웅길 동문, 종신이사로 추대



광웅길(문리 59) 동문이 지난 5월13일 LA 자택에서 소천했다. 광 동문의 미망인 광연자 여사는 광 동문의 부탁으로 미주동창회에 종신이사비를 납부, 마지막까지 동문들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그 소식을 접한 동창회 임원진은 이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애도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광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와 동대학원을 거쳐 휴스턴으로 유학,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Chemical Co.에서 근무하다 1982년 개인사업을 운영했다. 제 19대 휴스턴 한인회장과 4대 휴스턴 한인학교 이사장, 2005년 서울대 휴스턴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휴스턴시에서는 1995년 12월 12일을 'James Kwak Day'(광웅길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광연자씨와 아들 상근씨 등이 있다.

/저서 소개/

저지르는 남자, 수습하는 여자

20여년간 여러 한인언론매체에 칼럼을 연재했던 광웅길 동문이 칼럼집 '저지르는 남자, 수습하는 여자'를 펴냈다. 광 동문은 1970년 유학온 이후 43년간 휴스턴에서 살았고 2013년 어바인으로 이사했다. 책에 실린 칼럼은 그가 휴스턴에서 쓴 것들 중 엄선한 것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엔 한국 여성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저자의 찬탄이 담긴 칼럼이 곳곳에 수록됐다. 그의 책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잠깐 소개한다.

"요새 한국에서 불고 있는 삼순이, 금순이 바람도 이해가 간다. 늦게야 여자들이 TV에서 보는 미스유니버스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깨닫고, 역척스러운 삼순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열광한다. 여자가 역척스러우면 마를 수가 없다. 우선 마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몸이 마르지 않는다는게 우습게 들리겠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하고, 음식도 골라서 먹어야 한다. 대부분의 삼순이나 금순이는 그럴 시간이 없다. 집안에서는 할 일이 많고, 모든 것이 자기 손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 몸매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은 자기 입에 다 넣어 저장할 한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느새 풍수가 되고 똥녀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삼순이나 금순이는 자신의 복제품이다. 그런데 그 삼순

이가 요즘 인기가 대단하다. 여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에 충실할 때 여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삼순이 같은 여자가 좋다. 대부분 이런 삼순이를 집에 데리고 있는 한국 남자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낀 여성에 대한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광 동문은 책을 낸 이유에 대해 한국에 있는 친척, 형제, 친구, 동창들에게 "사랑한다" "보고싶었다" "내가 너무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살았다며 이 책을 통해 그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 표지의 커리커처는 광씨와 부인 광연자씨 얼굴이다. 광씨는 "한국에 사는 여동생과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조카의 도움으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자비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미국 생활 속에서 느낀 단상과 철학이다. 광씨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에서 통



/동문 등정기/

AC(After Corona) 산행



김동근 (공대 60)

LA 북쪽 San Gabriel 산맥은 한때 그 높이가 10,000미터나 되는, 지금 Himalaya와 견줄만한 거대한 산맥이었다는 學說이 있다. 지금도 그 잔해물(?)들을 보면 웅장함을 느낀다. 그 김석두 동문(농대 58)을 포함, 많은 희생을 낳은 10,064 ft 최고봉 Mt. San Antonio (Mt. Baldy)를 비롯해 수많은 산의 집합체다. 1930년경 완성되었다는 California 2번 도로(Angelos Crest Highway)는 이 산맥을東西로 관통하는 장장 75miles의 험준하면서 아름다운(Breathtaking)산길이다. 그 길을 통해 갈수있는 수많은 Trail은 LA 산꾼들의 Mecca이며, 우리 산악회도 이곳의 단골이다. 그러나 산길이 아름다울수록 위험도 많은 법. 매년 눈이오면 통행금지, 비가오면 산 사태, 큰 산불, 교통사고 등이 많아 입산이 통제될 때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우리는 좀 멀지만 San Gorgonio (11500 ft), San Jacinto (10864 ft) 등 대체할 산이 얼마든지 있어, 지난 28년 간 매달 첫 토요일 정기산행을 취소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지난 주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번에는 시위 때문에 생긴 curfew로 집콕한지 2달반, 2번을 연속하여 산행이 취소 되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허드라... <서편제 사철가>

드디어 산행의 기회가 왔다. 장대 비가 온다고 마다할소나. 산행후 산악반 그룹 카톡에 올라온 글들을 모아본다.

■김근숙 (공대 60)

黃河之水天上来, 奔流到海不復回 (李太白: 당) : 어찌 1초가 아깝지 않으랴. 6월6일 이달 첫 토요일 정기산행의 날이다. covid -19 집콕과 George Floyd 사태로 생긴 LA curfew, 산행을 취소할까 말까를 망설인 것 같다. 더욱 30%의 비가 온다는 예보이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튀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산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랜만에 우리들의 만남은 포용 대신 반가운 눈빛으로 시작한다. 산길 걸음은 지겨움을 순간순간 느끼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부담없는, 한가한 마음이 한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든다. 어느듯 주위의 흙, 바위, 큰 소나무, 들꽃에 익숙해지고, 나무 그늘아래 띄엄띄엄 쉬면서 가지 고 온 간식을 나누어 휴

식을 갖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알맞는 나무그늘을 찾아 돌레돌레 앉아 잊혀져 버려 놓았던 점심을 먹는다. 식사 후 편안한 곳을 찾아 마른 솔잎위에 길게 누워 깊고 푸른 하늘을 멀리 똑바로 올려다 볼 기회나, 혹은 몇분간 눈을 붙혀도 본다. 원기 회복 후 산은 올라 올때보다 훨씬 쉽게 숨가쁨없이 내려간다. 그때서야 이 산행이 얼마나 좋은 만남의 인연인지... 산행후의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다음 산행을 또 기대한다. 어디서 이런 호뭇함을 찾을 수 있을지?

서로 웃으며 동감해 본다.

■유재각 (음대 72)

雲深不知處 (貫島: 당) : 오늘 2번에서 구불 구불한 산길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알지 못할 질은 구름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하여도 바로앞에 있는 차도 잘 안보이고 앞을 보아도 옆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하얀 안개 비구름 뿐 여기가 산속인지 바닷가 해안도로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 오늘 산행은 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시야가 흐리니 미끄러운 길 조심해야겠다고 약간 걱정이 되면서 마음 약한 사람은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산길은전 1시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산에 간다.

Because it's there (George Leigh Mallor: 산 24): 산이 거기 있고 우리가 즐기고 정복할 정상을 향하여 오늘도 걷는다. 30분 일찍 맨 처음 도착했으나 바로 대장님이 오시고 또 한대 또 한대 10분안에 모두 일찌기 10명의 산악대원이 모였다. 거처온 험한, 그래서 신비하기도 했던 날씨와 위험했던 길을 통과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거기 용사들을 반기는 파란하늘과 구름과 푸른숲이 있었으니..

■김인권 (치대 72)

春色滿山 百花爭豔 : 하이킹하기 좋은날씨에 걷기좋은 트레일과 푸른나무들과 노랑고 보라빛, 하얀꽃도 우리를 반기고, 덤지도 춤지도 않으며 모임장소로 한시간 산길 달릴때의 질은 안개

인지 구름인지 온데간데 없이, 주차장에 전원 모이자 그로부터 하루종일 맑은하늘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웅스러든 우리들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 하루였습니다.

■정동구 (공대 57)

覆面을 한 荒野의 無法者들... 다른대원들과 같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는 불편도 곧 익숙해져, 급한 경사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다. After Corona의 니캅 (niqab)을 쓴 美女들과 覆面으로 正裝한 山賊들.

■이호진 (간호 74)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였어요. 다음에 여건이 되면 계속 열심히 쫓아다닐게요. 자주 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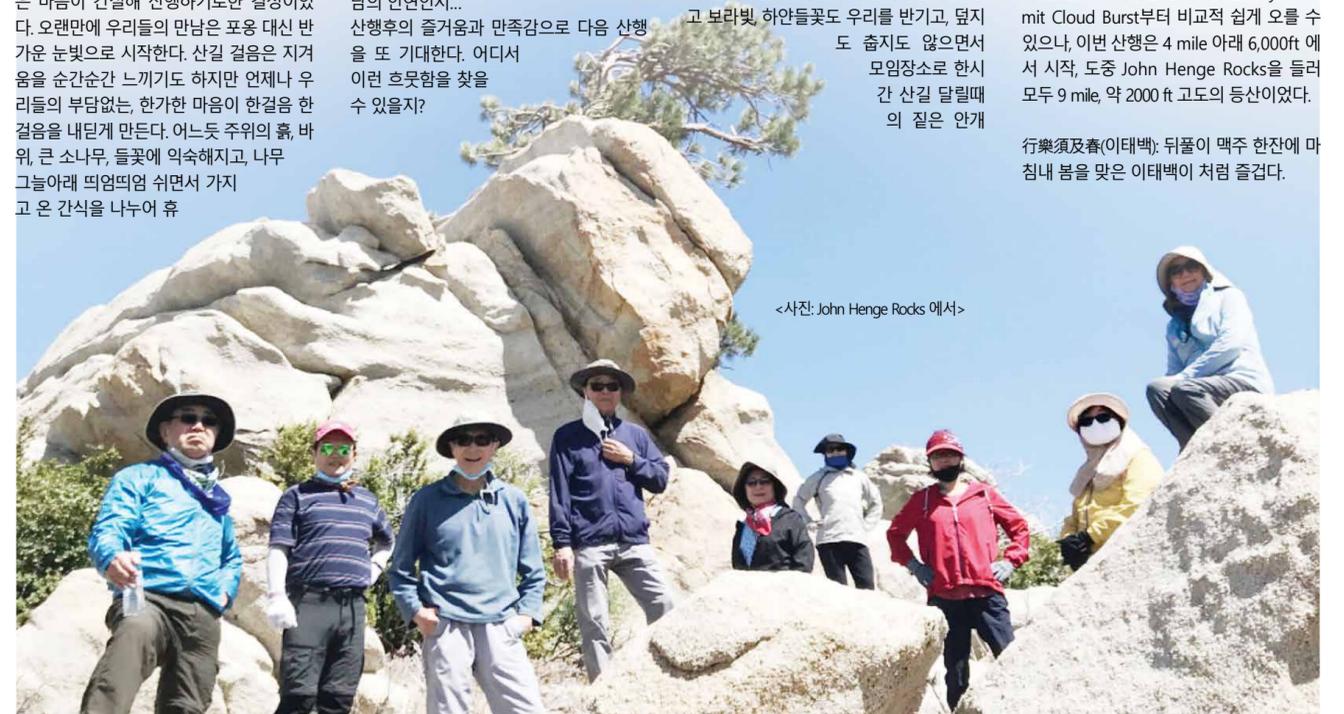
■이안순 (간호 78)

어제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혼자 갔으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걸 같이 가니까 하게 되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최 전방에서 코로나와 전쟁을 하시는, 자랑스런 2명의 대원님께 감사와 聲援을 드립니다. You need a break. 뒤꼍이도 감사합니다. 목적지 정상 7514 ft Winston Peak은 2번 Hwy 없을 때는 San Gabriel Mts.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산이다. 2번 Hwy Summit Cloud Burst부터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으나, 이번 산행은 4 mile 아래 6,000ft 에서 시작, 도중 John Henge Rocks을 둘러 모두 9 mile, 약 2000 ft 고도의 등산이었다.

行樂須及春(이태백): 뒤꼍이 맥주 한잔에 마침내 봄을 맞은 이태백이 처럼 즐겁다.



<사진: John Henge Rocks 에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2020년 6월부터 한국어 강의를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3주 한국어집중 과정(45시간): 2020년 7월, 8월, 1급과 2급 개설
 -10주 한국어 과정(60시간): 2020년 6월, 9월, 12월 1급과 2급 개설
 -정규 과정(200시간): 2020년 6월, 9월, 12월 개설

주요 특징

-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 소그룹 활동 등 교수자,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Q&A와 과제 피드백

* 온라인 지원: https://lei.snu.ac.kr/mobile/kr/klcc/schoolLife/online_application.jsp



조진태 (문리 57)

폭과 위기의 덕수궁

폭과 위기의 덕수궁

[1950년 9월 25일: 낮 동안 부대가 전진함에 따라 포격은 계속 진행되었다.... 전방 관측자(일선 소대원)가 전달하는 정보를 위주로 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총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T형 포격 조정에 요하는 숫자 계산을 위한 집중이 어려워진다. "제2포대 2발 일제 사격, 10분후 포격 개시"...]

[오늘 활동 사항 중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궁궐로 알려진 몇개의 궁 중에 서남쪽에 있는 덕수궁 정원에 적군이 계속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포격개시란 말 한마디로 수백명의 적군은 물론 기리 보존된 덕수궁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나의 양심이 허락치 않았다. 제1해병대 야포 중대장인 Anderson대위와 상의하여 포격 시간을 지연하는데 합의점을 찾았다.... "적군의 집중 지역인 고궁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즉시 그 이동 방향을 알릴 것"... 이것은 나에게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적군이 고궁을 나와 남쪽으로 전진하여 반격을 가하면 아군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초조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드디어 희소식 접수, "적군이 고궁을 나와 을지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나는 즉시 FDC를 불러 포격 개시를 지시....]

[오늘날 덕수궁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만으로도 흐뭇함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옛 왕궁을 살려 보존하는 것은 옛날의 구조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옛날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옛날의 사상과 체제에서 벗어나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항상 구상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국민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동족 살생을 해 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공산 체제는 완전한 전체주의로 수많은 인종 살생을 실시해 가는 Stalinistic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불타는 서울

[1950년 9월 26일: 제 1해병대는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용산을 지나 서울역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한 밤 중이 되어 전세 악화.... 새벽 2시반경 탱크와 야포대를 동반하여 적군의 반격 시작.... 해병대는 105mm호위차 대포를 너무 쏘아 댄 결과 포탄은 매진되어 가고 포의 과열로 인해서 한 대씩 두 대씩 사격 중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 연대가 적에게 격파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짊어 지고 있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한강 남쪽으로 밀리

Dill 중위는 1948년에 소위로 임관되어 Ft. Sill 주재 미 육군 포병학교의 제 18야전포병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8월 하순에 1개 사격지휘소대 (Fire Direction Center, FDC는 장교 3명 사병 25명으로 구성되어 155mm 자주포대 사격 지휘) 를 즉시 차출하라는 명령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진하여 관측장교로 참가할 것을 지원한 분이다. 이분은 계산 능력이 탁월하였고 Slide Ruler 와 Logarithm 을 사용하여 야포 사격을 능숙하게 담당할 수 있었다. 중위로 승진되어 Arkansas 주 Prescott의 집을 방문 이틀만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일본을 향해 출발하였다. 집결된 10군단 병력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서울 수복전에 참전하면서 틈나는 대로 일기의 노트를 상세히 작성한 분이다.

역자 조진태는 1992년 여름에 Little Rock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건축기사로 활동하는 점잖은 외모의 저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원고의 공개를 주저하다가 몇 번의 권유 끝에 1995년 초에 겨우 원고를 받아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일기 중 중요한 소재를 임의로 선택하여 괄호 [] 내에 인용하였음을 알린다.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서 서울 탈환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저자가 속한 제 31야포대대는 잠실 근처에 위치하여 있었고 관측장교인 자신은 ㄹ론 트럭에 통신병과 함께 김포 근처에서 도강하는 제 1해병대 탱크대와 함께 나루베토 한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며 서울시내 접근하였다. 서울 탈환 작전 총사령관 Almond 소장이 이미 서대문 근처에 와 있어서 이에 합세하였다. 어느 언덕에 올라 온통 불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제 1해병대는 한강 대교 근처에서 도강하고 제 32보병 연대는 한국군 제 17연대와 함께 수류 양용차로 잠실 지역에서 도강하여 서울 탈환 작전이 진행되었다. 155mm 자주야포 탄은 최대로 14.6km 약 9마일을 날라 가기 때문에 관측장교는 포격 지점이 잘 보이는 높은 지점에서 포탄 비행선 좌측 또는 우측에서 포격을 지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역자 주>

게 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야포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겠소" 군단장의 요청을 Anderson 대위가 전하는 것이다. "Industry 3, 여기는 Industry 100, 방위각 810, 좌표 25.4-57.5, 무장 탱크와 함께 적군의 대규모 공격, 일제 사격으로 포격할 것임, Over". "Industry 3, 알았다, 잠깐 대기". (잠깐 대기는 대대장의 인가를 받아 대포 방향 조정) "여기는 Industry 6,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Over". "Battle 6으로부터 긴급 요청임. 대대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여기, Industry 3, 중대 대포 조정이 준비되어 있음, 각 대포 20발 발사 준비 완료, Over".]

[관측소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니 너무나 비참하다. 전 도시가 불에 타고 있다. 저기에 포격 개시를 하면 불바다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메스꺼움이 솟아 났다. "Klasen,

Splash 요청하게". "땀다, -----Splash". (Splash는 포탄이 목표에 떨어지는 5초 시간을 알림). 그러나 불타는 화염속에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이지 않는다. 재 발사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보인다.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만 한다]

[“전 포대 우로 봐 포격, 인산탄 1발 요청”. 인산 탄은 백색의 밝은 광채를 내며 터지는 포탄이고 전 포대 우로 봐 포격은 대대 전체 대포가 대포 맨 우측으로부터 한 대씩 5초 간격으로 쏘는 것이다. 이것은 사령관이 포대 방문시에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다. "제임스가 돌아나" 하는 병사도 있겠지. 이제 5초 간격으로 터지는 흰 연기를 놓칠 수 없었으나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좌로 8백야드, 거리 1천야드 줄이기". "발사--- 땀다--- Splash". "4백야드 더하기". 드디어 폭발 지점들이 직선상에 왔다. "4각내에 잡았

음, 200야드 줄이기, Over ". "1백야드 더하기, 포격 개시, 전 포대 포격 개시". 155mm 포탄 360개가 한 장소에 퍼부어 대는 것이다. 내가 조정한 것은 적의 탱크가 포를 발사한다고 생각된 지점을 향해서 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늘 밤 우리를 살렸소이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에게 전해주게, Over”. 최전선 해병대 중대장이 Anderson대위에게 한 통신이었다. 즉 적군이 우리를 한강 남쪽으로 밀어 내려는 마지막 공격이 실패한 것이다.] [“자네가 T형 포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 포대 우로 봐 포격, 인산탄 1발, Sir' 하는 것을 멀리서 들었네" Almond 장군이 나를 불러 한 대화이다. 군단장이 일개 중위를 부를 때는 무언가 큰 일이 났나 우려했으나 그의 칭찬을 듣고 "후우"하고 안심을 했다. 후에 들은 것으로 내가 사격한 포탄이 적의 탱크 7대 반을 찌적 갈라놓고 야포대도 대부분이 파괴된 것을 알게 되었다]

[1950년 10월 3일: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어 MacArthur장군이 서울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넘겨주었고 우리는 몇일 쉬는 날이 되어서 서울시내 구경을 하게 되었다. 시가는 비참한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저 파괴된 부분의 얼마만 큼이 내가 실시한 포격에 의한 것일까? 하고 생각할 때 나는 구역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파괴하는 것 보다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이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군인을 포기하고 건축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되었다]

[James H. Dill중위는 그의 공적으로 미국 Bronze Star, National Security Medal과 한국 대통령 부대 표창, 한국 군무 기장 등의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문골리에서 16일' 등이 있다. 2011년 6월에 KBS 역사스페셜 팀이 덕수궁이 보존된 내용과 저자 소개를 위한 자료를 역자의 협조로 수집하여 방송한 바 있다. 역자는 그의 인류에 대한 자애와 연민을 실천한 마음에 대해 항상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폭파 위기의 덕수궁: 제임스 해밀턴 딜 (James Hamilton Dill, 1928-1998) 저. 한국전쟁 참전 수기 입선작/ 제 8호 1996년 5월 국방군사연구소 발행 (83 pp). 1950년 8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6.25 한국전쟁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기 중 발췌. 영문 원고, 한국어로 조진태 역.



호일 장옥일(공대 59)

/ 동문 시 /

아픔과 슬픔끼리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 아픔이 다른 아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댁니다

슬픔과 아픔이 만나 서로 버텨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버려진 운명에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품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진 길가 잡초 무성한 빈터

한쪽 다리 부러져 깨진 찬장이

문짝 떨어진 녹슨 냉장고에 기대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만나 서로 버텨 주고 있습니다.



아해 김태형(의대 57)

/ 동문 시 /

나는 알았다, 눈부신 이 봄에

보고픈 사람을 만나 볼 수 없다면

봄이 와도 봄이 아니라는 걸

거리가 텅 비면 도로가 흰히 뿔리면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와 기웃대며 말을 걸어온다는 걸

창문을 열면 발코니에 나서면

성악가도 평범한 이웃들도 노래로 위로한다는 걸

마스크가 부족하면 음식이 떨어지면

밤새워 만들어 나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걸

이젠 정말 알았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은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노인은 병약해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걸

이웃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며 재난엔 세계가 협력한다는 걸

거리를 불철주야 달리는 구급대원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걸

휴가도 반납하고 밤을 지새는 간호사는 천사라는 걸

의사는 여전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담고 산다는 걸

왕관 쓰고 숨어 다니는 너, 코로나바이러스야

그만 네 왕국으로 돌아가거라

눈부신 이봄이 다가기 전에



홍경삼 (문리 61)

/ 회고 /

아~ 잊고 싶은 그 눈빛

1950년~1951년 사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한다. 그때 내 나이 9살로 한창 자라고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때지만 학교는 전쟁이라 다닐 수 없고 집에서 작고고모님이 글 읽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당시 나 자신이 신중하게 여긴 것은 아라비아 숫자 특히 한자로 99까지 쓰고百을 쓴 다음 얼마든지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 신기하고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느꼈다.

10월 중순경에 신문팔이 노릇 하느라 성북동 골목을 뛰어다녔고 친구들과 성북천에서 썰매를 신나게 타고나면 추위는 느끼지 못하고 얼굴에서 무럭무럭 김이 오르기도 했다. 밤이면 추위는 그야말로 맹위를 떨쳐 숨이불을 뒤집어쓰고 유단뽕(일본말. 타원형 양철로 된 것)의 더운물을 이리저리 이불안을 굴리다 보면 낮에 눈 것이 피곤한지 어느새 잠이 든다. 밤에 잠을 깨는 것은 포성도 있을 때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떠 놓은 양재기의 자릿기가 얼은 다음 더 이상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짹짹 소리 내며 갈라지는 소리 때문이었다.

1950년 12월 말인지 1951년 1월 초인지 우리를 유난히 챙겨주고 보살펴주던 파출소 소장인 전선이 이상하다며 남쪽으로 피난 가기를 종용한다. 남북 대신 남편이 찾아 올곳은 이곳이고 병환 드신 시어머니, 3살 된 어린애까지 있으니 갈 수 없단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못 모시고 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무사하십시오. 편안하세요"하며 돌아서든 인사하신 파출소장이 지금도 고맙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때가 바로 1.4 후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당시 상황으로 1월 7, 8일쯤) 국군, 미군이 서울을 떠나고 다시 인민군이 들어 왔지만 사상이 없는 나이 어린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여느 때처럼 삼선교와 성북동 첫 번째 다리 중간지점 여름이 넓게 연 곳에서 심여 명이 썰매 치기를 하고 있었다. 한 녀석이 위를 가르치며 "야~ 양키 봐라. 잡혀간다." 내가 보기에도 스무 살 안팎의 양키가 뒤로 손이 묶여 앞에서 걸고 뒤로 인민군 3명이 따릉총을 들고 걸어간다. 따릉총은 어린 우리에겐 신비스런 총이었다. (*책코에서 만듦)

총을 쏠 땀 "팟" 소리가 나고 총알이 목표에 도달한 순간엔 "쿵"소리가 나기에 따릉

총이라 했다. 어쩌다 따릉총을 들고 있는 인민군을 보면 따릉소리를 듣고 싶어 우린 한번 썩보라고 조르기도 했다. 썰매를 타던 우린 모두 행동을 멈추고 끌려가는 미군을 쳐다보았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은 하하 웃으며 "양키~ 양키" 하며 조롱 조로 웃으며 손가락질도 한다. 미군과 같은 또래의 인민군은 우리에게 웃음을 보낸다. 난 맹세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저 불쌍한 기분



▲2014년 3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세우는데 총책임자 예비역 해병중령 John Stevens(가운데)를 찾아 아내와 함께 기부금 전달 후 찍은 기념사진.

이 들었다. 그 어린 미군이 우릴 쳐다본다. 아니 하필이면 나만 쳐다본다. 그렇게 느꼈다. 폭파된 개천 아래 자신도 미국에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을 절없는 아이들을 쳐다본다. 실제 거리는 7-8 미터 정도. 그런데 그와 나의 거리는 2-3 미터 정도를 가깝게 느껴지고 그의 파란 눈동자의 눈빛은 나를 본다.

무슨 말을 나에게 하는것 같다. 그의 그때 심정이 눈빛에 담겨 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무엇을 나에게 말을 할려고 했을까? 내 비록 당시 9 살이지만 인간으로서 그 무엇을 느꼈다. 썰매에 앉아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하하 웃으며 좋아라한다. 양키~ 양키~하는 소리도 여전히 들린다. 그들은 성북동 위쪽으로 사라졌다. 다시 우리들은 썰매를 이리저리 치고 다니며 놀고 있었다.

땃소리가 숲 속에서 나더니 쿵하고 메아리가 들린다. 아~~~ 파란 눈빛이 떠오른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할려든 그 눈빛 얼마 후 인민군 3명이 웃음을 머금고 걸어 내려온다. 파란 눈을 가진 어린 미군 없어.. 그들은 왜 웃

었을까? 웃음이 나왔을까? 웃음이 아닐거다. 허탈함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어린 그들 역시 한 죽음을 좋아 할 리 없다.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전쟁이란 상황에서.

며칠 후 나이 든 친구가 말해준다. 삼선교에서 해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오른쪽에 새로 지은 집에 미군들이 자고 갔는데 너무 피곤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군 한 명이 잡힌것이라고.. 난 그 후 파란 눈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은 그 눈빛이 참

Mr. Stevens도 알지도 못한 아니 알고 있었던 병사인지도 모르는 부하의 최후를 듣는 순간 눈물과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을 참고 있음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의 눈물은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 어린 목숨을 빼앗긴 파란 눈동자를 가진 친전난만한 어린 병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줄 몰랐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서 내게 준다. "내가 얼마 전에 받아 아끼는 책인데 선물로 주고 싶다. 난 다시 신청하면 된다." 625동란 60주년을 맞아 한국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KOREA REBORN A GRATEFUL NATION"이다. 동란의 참상, 고생하는 미군의 모습, 전후 발전한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담아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무료로 배분한 책이다.

2016년 8월 1일 참전비 개막식에 참석하여 Mr. John Stevens의 파란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했다.

- 2016년 8월 19일 홍경삼

◀San Francisco에 위치한 Presidio National Park에 세워진 Korean War Memorial전경.

전 용사 뭐 이런 말만 들으며 떠오른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될 눈빛이다. 그 눈빛은 한국을 지키고 발전케한 원동력이다.

2013년 San Francisco 시내 안에 있는 Presidio 국립공원 안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하고자 준비위원회 부회장인 John Stevens 예비역 해병 중령 사무실을 찾았다. John Stevens은 장진호 전투 때 동상으로 왼쪽 발가락이 몇 개를 잃었으나 자기 연금을 몇 년간 참전비 건립에 기부한 금액이 \$86,000이상이고 94세인데도 모든 준비, 실행을 직접 하신 분이 다. 이 분이 "왜 기부금을 내는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하고 묻는다. "한국인이면 무슨 동기가 있겠는가? 당연히 참가해야죠"하니 웃는다. 하지만 나에게엔 잊지 못할 눈빛이 있다며 위 에게기를 했다. 말하는 동안 양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옆에 있던 비서가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본다. "지금 너 누구 앞에서 양키라고 하느냐? 그 말이 얼마나 미국사람들에게 치욕적인데"하는 눈빛이다.

이미 625 이전부터 이북이 남한으로 송전(送電)을 중단한지 오래되어 우리나라의 전력이 몹시 부족하여 밤에도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시로 전기가 꺼지기 때문에 실내의 전등은 아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 실정이었다. 625 당일은 주일이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맞은 전등이 켜졌다. 대규 대봉장교 회를 창립, 시무 중인 이상근 담임목사는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몹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무슨 비상방송이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셨다. 당시 목사님 사택이 낮에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후 모두 목사님의 라디오앞에서 특별방송을 귀담아들었다. 예고도 없이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Mr. Stevens도 알지도 못한 아니 알고 있었던 병사인지도 모르는 부하의 최후를 듣는 순간 눈물과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을 참고 있음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의 눈물은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 어린 목숨을 빼앗긴 파란 눈동자를 가진 친전난만한 어린 병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줄 몰랐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서 내게 준다. "내가 얼마 전에 받아 아끼는 책인데 선물로 주고 싶다. 난 다시 신청하면 된다." 625동란 60주년을 맞아 한국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KOREA REBORN A GRATEFUL NATION"이다. 동란의 참상, 고생하는 미군의 모습, 전후 발전한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담아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무료로 배분한 책이다.

2016년 8월 1일 참전비 개막식에 참석하여 Mr. John Stevens의 파란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했다.

- 2016년 8월 19일 홍경삼

* 2017년 10월 서울서 잠시 방문하신 큰형님 홍병흥(공대 54)을 모시고 이곳을 찾았는데 Mr.Stevens이 어느 여인의 보호를 받으며 힘든 걸음을 옮기다. 반갑게 인사를 하니 자기는 자주 찾아 온다며 형님 내외를 모시고 와 감사하다고. 감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열 배는 더해야 할 것이다. 형님내외분자가 새긴 벽돌도 추가면에 놓여있다.

이 글을 읽어 본 대학친구 김승용이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을 보내왔다.

* 경삼아, 캄캄한 이 꼭두 새벽, 너 날 이리 울려도 되는 건가! 네 굴 속의 양키 눈빛을 떠올리며 세 번 운다. 울고나니 양키의 그것보다 더 여필해 오는 게 있다. 복구(北寇)의 어느 왕자 닮았던 네 눈빛 말이다. 오십 수년 전 입학 첫날, 동승동 뽕강 벽돌 강의실 옆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내게 큼지막하게 다가서던, 너의 착하디착해 슬프기까지 하던 눈매 말이다.

맛다, 맛고말고! 그런 눈매 지냈던 네게서 이처럼 아름답고, 아름답다 못해 슬프기 그지 없는 이야기가 아니 나올 수 없지!



김기훈 (상대 52)

/ 회고 /

내가 겪은 6.25

에 제출하여 대규에서 수험하였다. 부산에서 합격자 발표가 있는 시기에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을때라 고민 중이었는데 다행히 아는 친구가 부산에 간다기에 어려운 부탁을 하였다. 부산 가교사에 가서 합격자 발표를 봐 달라고. 3일째 되던 날 그를 만났다. 합격이 되었으면 곧 와볼 터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워 하루 늦게 찾아왔다. 가부간 수고에 감사하였다. 하지만 나의 실망도 컸었다. 또 다시 시험 지옥을 거쳐야 되니... 그 후 어느 날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 통역은 대대본부로 집합이라는 명령이다. 나를 운전해준 미군이 귀땀을 해주었다. A 중대 소속의 동료 헌병 두 사람이 순찰 중 인민군 병사 2명을 체포해서 대대본부에 넘겨줬다는 얘기. 나의 반응

트루만 대통령의 용단으로 맥아더 장군에게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한국으로 이동하여 남한을 방어하게하였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 인민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을 조직, 한국에 파병을 결의하였다. 당시 인민군은 낙동강 동쪽 경성남북도를 제외한 남한전역을 점령할 만큼 기습을 계속하였다. 그때 나는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왜관에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총탄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 속에 기거하였었다. 곳은 날씨가 천둥이쳐도 포탄소리로 들려 겁이 났었다.

6.25 당시 현재의 고3 시절, 미군을 만나 영어회화 습득

서울 상대 합격후 등록금 내려가던 길에 미군 도움받아

6.25 거치며 인생의 전환점 맞아... "참전용사들에 감사"

은 일선에서 좀 먼 거리에서 이북 군인이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대본부에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나의 욕감이 옳았다. 분명히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던 하지만 얼굴에는 남자인데도 짙은 화장을 했고 말도 이북사투리 대신 경상도 말을 하고 있었다. 너털웃음을 보이면서 이 두사람은 진짜 인민군 병사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방에 파견된 정훈국 소속 극단 배우라고 설명하였다. 공연 중 중간 휴식시간에 극장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잡혀왔다는 고백이었다. 덕분에 연극전쟁이 약 2시간 이상 지연 되었었다.

다음해 A중대는 문경의 긴 새재 교통을 정리하는 부담을 맡게되어 이동하였다. 정착된 곳은 문경초등학교 교사. 옛날에 건축된 교부랑 길이라 미군들이 운전하는 군용차는 양방통행이 불가능할 만큼 좁았다. 길을 넓힐 작업은 제한된 시간에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 부대가 이동을 하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기다려야했다.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았던 때라 수 십대의 군용차가 계속 지나가면 먼지를 덩어리 떨어뜨렸다. 이곳에 국군부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하루는 한국병사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숨이 가쁜 상태로 미군에게 도움을 청하려 초소에 왔었다. 사연인 즉 자기 소

대의 M1 소총속에 총탄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중간에 박혀 있다는 하소연이다. 미군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사정을 듣고 부대 본부로 가져갔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에 쌓여있었다. 잘될 것이라고 위로해 해주었지만 나도 자신이 없었다. 약 반시간 후에 총알을 빼고 무사히 배달해 주었다. 국군 아저씨는 진정으로 감사했다. 연이어 부대는 경기도 이천지방으로 옮겼다. 미군 추력 운전병들이 수시로 잘못 들리는 곳이다. 이천(Inchon)에 가서 배로 하역된 목재를 싣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지도를 보면서 도착한 곳은 이천(Chon)이다. 실망한 미군을 다시 먼 길을 가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것도 민망스러운 느낌이었다.

하게 되었다. 다음해(1952) 다행히 상과대학의 입시에도 합격이 되어 부산 가교사에 입학 후 2년 공부를 하고 서울 현도후 3학년 때 서울로 가게 되었다. [상대 뺨지를 달고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다]. 같은 대학에 가게 된 친구와 함께 배낭에는 도시락과 새학기 등록금을 벽돌크기의 두툼한 현찰을 신문지에 싸서 넣고 한강교를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도중 순경이 우리를 보더니 신분증을 조사한 후 배낭에 든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현찰을 등록금으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순경의 반응은 내가 그말을 믿으란 말인가 하고 따진다. 무슨 불법행위로 많은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고 파출소까지 나를 따라 오란다. 순경의 마음보는 충분이 알 수 있었다. 호주머니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당장 우리들이 그날부터 식사를 할 돈이 없어지는 터이라 난감한 생각으로 같이 걷기 시작하였다.

한강인도교 중간쯤 왔을 때 반대쪽에서 미헌병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아구 뉴맨 중사가 아닙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훈!"하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728 헌병대에 있었던 중사이다. 두차례 한국에서 자원 근무하고 3일 후에는 귀국하는 날이었다. 728 헌병 중대는 지금 한강교를 수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남은 친구를 미군에게 소개해주었다. "How do you do, Sgt. Newman!" 하고 유창한 발음으로 인사하였다. 그의 동료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 "Three more days!" 라고 대답한다는 것. 곧 귀국하는 것이 머리에 찍 차 있는듯 나는 곧 지금 이 순경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하고 뒤돌아 봤더니 그는 어디엔가 가버리고 없었다. "덕분에 우리들이 구출되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하나님이란 쪽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문을 열어 주신다 라는 것이 나의 신조가 되었다.

회고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 1학년까지는 일반말, 해방 후 중학교 2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말, 1957년 도미하여 학위를 마친 것은 영어 등 3개 국어와 세가지 문화권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625를 통하여 나의 삶에 여러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모든것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된 것"이 진정한 나의행운이었다. 퇴직한지도 10년이 지났고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커네티컷 주에서도 여러번 6.25 참전용사들에게 사은 모임을 가질 때 마다 그들을 초청하였다.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동시에 남과 북이 하루 속히 통일이 되고 평화를 만끽하는 백의민족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해 7월 중순에 첫 휴가를 받아 1주일 집에 가서 잘 지내고 부대에 돌아가야 되는 하루 전날 기차 시간표를 알기 위해 대규에게 갔었다. "야, 기훈이 아니냐?" 반가운 인사를 해서 친구는 함께 법대에 입학시험을 친 동창생이었다.

"상구야, 반갑다!" "정말 오랜만미군. 그런데 왜 연 등록을 하지 않고 강의에도 오지 않느냐?" 이 말을 듣게 된 순간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불합격이 된 것을 빈정 되는투로 느꼈다. 모기같이 낮은 목소리로 "합격이 안되어 미 헌병부대에서 일하고 있단다" 간신히 말을 이었다.

"임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도 합격이 되었단 말이지"

"그럼! 헛소리가 아니야!" 그러하여 부대에 돌아가야 되는 날짜인데도 포기하고 부산 가교사에 갔다. 아니나 다를까 합격이 되었었다. 당시 유기천 법대학장님을 만났다. "비록 합격이 되었지만 일단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년에 다시 응시하도록 하고, 만약 다른 학생과 동점이면 우선권을 십대의 군용차가 계속 지나가면 먼지를 덩어리 떨어뜨렸다. 이곳에 국군부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하루는 한국병사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숨이 가쁜 상태로 미군에게 도움을 청하려 초소에 왔었다. 사연인 즉 자기 소

아메리칸드림 넘어 '하나님 나라' 를 향하여

/ 사람, 사람들 / **김현영 선교사 (수의대 58)**

김현영 동문은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33년간 수의병리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온 가족이 전문인으로 자리잡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가정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연령 제한도 없는 안정된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 넘어 '킹덤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마을에서 아내(이덕주 선교사)와 함께 부부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한 평생을 헌신한 그의 인생길을 동문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에서 강연중인 김 선교사와 경청하는 학생들.

-서울 수의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중고등학교 (서울사대부중고) 시절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창의성, 비전, 개척자 정신 등 좋은 미래적 교육을 받았다. 그러한 창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젓소 낙농산업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당시 한국에는 목장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그 넓은 푸른 목야에서 100여 마리의 홀스타인 젓소들이 함께 평화스럽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풍경 또한 착유실에서 기계를 이용, 자동으로 우유를 착유하는 모습, 그리고 젓소에게 청진기를 들이대며 진찰하는 수의사의 모습들은 나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꿈을 갖게 하여 주었다.

수의대 재학중에는 롤모델인 스코필드박사를 스승으로 만났다. 수의대를 졸업후 현재까지 58년간 오로지 낙농동물 수의학 전문인으로 살아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 미국에 유학오신 계기는?

고등학교와 대학시절부터 미국 유학은 인생의 목표중 하나가 될 정도로 꿈이었고 더우기 수의대 입학 후 미국의 낙농동물 수의학에 더욱 관심이 많아져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유학은 기대이상으로 자랑스런 수의학 전문인으로 키워 주었다. 조지아대학(UGA)에서는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첨단 연구시설에서 미국인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며 새로운 국제적 감각과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UPenn)에서는 세계적 수의학 전문인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동시에 미

국 수의사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시험에 합격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 연구관 공무원으로 뽑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의과대학 대동물 캠퍼스는 Kennett Square에 700 Acres에 이르는 광대한 땅위에 세계적 연구단지를 갖고 있다. 연구용 젓소 등 많은 대동물들이 실험목장에서 키워

을 줍니다"라고 적혀 있다. Schofield 스승께서 제자에게 뿌린 선진적 수의학과 하나님의 박애 정신등 거쳐씨가 미국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 제3국 과테말라에 가서 다시 씨를 뿌리는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14년간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학의 초빙교수로서 또한 수의과 의료 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의사에서 선교사로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아직도 수의학 전문인으로 수의과 자비관 전문인 선교사로 발전된 것이다. 수의과대학 시절 캐나다 선교사이며 세계적 수의병리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를 수의병리학 스승으로 만나 그때부터 농촌개발 선교사역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의 나이 70세에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에서 은퇴 하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할 시기에 곧 이어 1958년 한국에 두번째로 입국 하셨다. 그는 82세까지 그의 생애 마지막 12년을 교수로서 또한 자비관 전문인 선교사로서 한국을 기독교적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하셨다. 가장 뜻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되시고 사랑하던 한국땅 동작동 국립 묘지에 안장 되었다.(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 선교사로 사역하시며 3.1운동 잔학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후 3.1운동 민족대표 제34인으로 칭송받았다)

- 과테말라 선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지난 14년간 산칼로스 국립대를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 사역할때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시 맞춤형 전문인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협력선교단이 만들어져 현재 대학캠퍼스 사역, 농촌개발사역, 의료사역 등 3분야로 나뉘어져 각분야대로 독립적으로 그러나 연합하며 사역하고 있다 (고전12:12).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 초빙교수로 임명받은 후 사재를 털어 값비싼 새로운 진단기구들을 구입해 그 대학에 작은 젓소 질병

안정된 수의 연구관 공무원 버리고 과테말라 농촌 사역

산칼로스대 교수 임명, 사재 털어 젓소 질병연구소 설치

"영어 성경 제자훈련 등 아내의 내조, 사역활동에 큰 힘"

지고 첨단 연구시설물이 있는 곳이다. 당시 유럽, 남아공등 세계 수의과학자들이 유학 와서 연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선진국 수의학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 지난 2013년 자랑스런 서울대 수의대인상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로 지켜온 사명이나 뜻이 있다면? 과테말라 산칼로스국립대에 있을때 상을 수상하라고 수의대로 부터 초청을 받았다. 상패 내용에는, "귀하는 대학시절의 희생적이고 봉사정신이 높은 스코필드박사를 존경, 그를 롤모델로 삼아 젊어서는 미국 수의 연구소에서 수의전문인으로 봉사하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과테말라에서 수의과 의료 선교사로 우수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어 상

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스코필드가 서울 수의대에서 손수 행하였던 사역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의대 장한상을 받은지 6개월 후인 2014년 4월11일에는 서울대 주최 "스코필드박사 추모기법 심포지엄"에 주강사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오연찬 서울대 총장의 기념사, 정운찬 전총리의 격려사, 이종찬 전국정원장의 "스코필드박사의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는등 귀중한 자리였다. 그때 나의 강연제목은, "Dr. Frank Schofield: A Scholar and Missionary, Spreading His Spirits in Guatemala"이었다.

- 수의사로 활동하다 선교활동을 시작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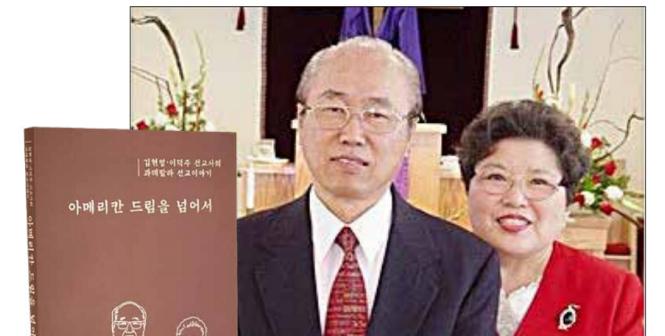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마을에서 아내(이덕주 선교사.맨오른쪽)와 함께한 김 동문(오른쪽에서 세번째).

진단 연구실을 세웠다. 그 연구실을 통해 그곳 대학교수들이 직접 젓소 질병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목장과 이웃 5개 마을에서 젓소 84마리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중요질병에 대한 역학조사(Epidemiological study)를 연구하였다.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부루셀라병을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학과 공생적 관계를 구축하여 대학을 선교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켰다. 동물병 진단 연구실을 시발점으로 대학생들에게 영어성경 제자 훈련(아내 이덕주 주관) 사역과 마야 원주민 농촌개발 선교(젓염소 분양사역) 사역 등 두 축으로 삼아 과테말라 선교가 시작 되었다. 현재 대학에는 다른 동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Café

리칸 드림'을 이루셨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킹덤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 부모님의 선교적인 삶의 이야기를 반추해 보면 그 자체로 귀중한 간증이자 선교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중 힘들었던 일은 젓염소사역을 하면서 수백마리로 증가하면 치즈공장을 예상하였는데 젓염소 사육이 현상 유지도 못하며 죽어 갈때였다.

-부인 이덕주 여사님의 내조 또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국 유학 오기전 서울여대에 강사로 출강할때 그대학 농촌과학과 1회 출신으로 고대



▲김 선교사와 평생의 동반자 아내 이덕주 선교사
◀자서전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젓염소 분양사역 시작...서울의대 동문 선교팀과도 협력

"아메리칸 드림 이룬 동문들, 은퇴 후 더 의미있는 삶 기원"

Church가 세워졌다. 농촌개발사역은 대학의 5-year Goat Extension Program을 교육과정으로 세워 젓염소 분양사역을 시작하였다. 그후 수의대 동문 등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도 세우고 공동목장도 세웠다. 얼마전에는 대학교수 7명을 한국으로 보내 새마을운동 훈련을 받고 돌아와 그들이 농촌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8년도 부터는 서울의대 동문게서 의료선교팀을 구성, 그곳 국립병원에서 함께 협력사역하고 있다.

- 선교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기에 학생들에게 뿌린 씨가 자라 훌륭한 기독교적 리더로 자라 동역자가 된 것이다. Duke는 마야원주민 출신으로 대학생활 중 계속 일드하였던 학생이었다. 대학 입학시 나의 강의를 듣고 그후 꾸준히 제자 훈련과정을 통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 하였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우리 과테말라사역의 Coordinator일하고 있다. 또한 선교에 있어 아들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내용의 일부 중 한부분을 소개한다. "나의 부모님은 은퇴 후 골프나 여행등 즐겨야 할 노후에 오직 선교에 온 시간을 바치시며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며 존경하고 있다. 부모님의 지난 50년간의 미국 생활의 여정을 보면 이민자에서 선교사로 전환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민자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두 아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켜 '아메

리칸 드림'을 이루셨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킹덤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 부모님의 선교적인 삶의 이야기를 반추해 보면 그 자체로 귀중한 간증이자 선교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중 힘들었던 일은 젓염소사역을 하면서 수백마리로 증가하면 치즈공장을 예상하였는데 젓염소 사육이 현상 유지도 못하며 죽어 갈때였다.

- 시니어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우리부부는 선교활동을 정년 은퇴후 인생 후반기에 시작하였는데 장점이 많기에 우리부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선교사 훈련원 강사로서 시니어 선교사 동원사역도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인디아스포라가 750만명이 퍼져 있으며 북미에만 250만명이 살고있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250만명의 선교적 잠재력은 대단히 큰 것이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세계적 언어인

영어를 비롯 두 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훈련 되어 이미 준비된 선교 인력이 되고 있다. 특히 실버세대는 인생의 전반기를 교회, 직장, 사업장등 사회에서 쌓은 인생과 신앙의 경륜과 경험이 있다. 연구, 저술 등으로 자비량 능력이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디아스포라들이다.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킹덤드림으로 전환 국제적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교의 자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사역에는 은퇴란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늙어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편이 낫다는 말에 동의한다.

- 요즘 특별히 관심이 가거나 흥미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선교는 계속하고 있다. 대학 제자들이 성장 동역자가 되었다. 그들과 매주 Zoom conference 통해 지난주에는 과테말라 국립병원에 마스크를 기증하였다. Covid-19로 인해 식량이 떨어진 지난한 사람들에게 food bank을 만들어 식품을 전달하고 있다. Hope라는 고등학교에 젓염소 목장 축사를 건축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곧 젓염소를 그곳에서 키워 젓을 짜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우유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미주 중앙일보에 부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 서울대 동문에게 전하고 하고싶은 말은?

미주 서울대동문들은 한국인은 물론 어느 나라 이민자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집단이라고 하겠다. 동문들의 재능, 배운학문, 기술, 경험, 은퇴금 등을 더욱 의미있는 곳에 사용

- 마지막으로 수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수의학은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다. 더욱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19같은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One Health"라는 새로운 학문이 지난 10여년간 열심히 연구되고 있다. One Health라는 정부 기구가 2009년 CDC안에 정식으로 생겼다. 즉 사람,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을 다루고 연구하는 의학, 수의학 생태의학등 종합 의학이다. 이러한 학문의 흥미를 갖기 바란다.

김현영 동문은

- 서울대 사대부중고 졸업
- 서울대 수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 서울여대 강사
- 삼육대 조교수
- University of Georgia(MS)
- University of Pennsylvania (Bovine Mastitis)
-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Licensed)
-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병리연구관(33년)
- 해리스버그장로교회(PCUSA) 장로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 PGM Silver 선교사
-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교수
- 저서 '선교용 젓염소 기르기' 등

하기를 바란다. 이미 그렇게 생활 하시는 동문들께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규양(전문 62)

/ 체험기 /

모로코 탈출기 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 작년 8월에, 금년 3월에 출발하는 2주 동안 모로코(Morocco)여행을 예약했다. 그런데 막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전 세계에 Pandemic 사태가 대두되기 시작해 여행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취소가능성을 타진했지만 Morocco는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여행을 취소 안하고, Coronavirus는 Africa같은 다른 지방에서는 퍼지지를 않으며, 게다가 이미 여행비를 다 지불한 상태여서 그냥 따라 가기로 하였다.



Washington Dulles공항을 떠난 지 약 7시간 반 만에 Morocco의 Casablanca공항에 도착 후 수도인 Rabat으로 향했다. Rabat은 깨끗하게 잘 정리된 도시였다. 첫날과 이튿날을 Villa Mandarine이란 아름다운 고급 휴양지 같은 곳에 묵었는데 잘 꾸며 놓은 넓고 깨끗한 정원 가운데 각종 꽃과 과일나무에 열린 신선한 과일들을 놀랄 만큼 잘 가꾸어져 특이하게 보이는 곳이었다. 그 이후 계속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이런 비슷한 곳은 볼수 없었다. 그후 부터 2주 동안 미국 각지에서 온 19명의 여행 동료들과 함께 Morocco여행이 시작됐다.

가족제품 생산지로 유명한 Fez를 시작으로 Morocco의 중앙에 있는 아름다운 Atlas 산맥을 넘어 Sahara사막의 낙타와 천막 생활도 체험하고 Todra Gorge를 지나서 Morocco 에서만 자란다는 Argan Tree와 Argan Oil 생산지 그리고 Marrakech와 Essaouira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Morocco의 여러 곳들을 돌아보며 Morocco를 새로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 중 여러 번 느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좁아서 똥똥한 사람은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크고 놀랄 만큼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세부까지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 내부였다.

불란서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고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이 나라는 국왕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의 국왕이지만, 단 한 명의 부인과 두 자녀를 둔 현 Mohammed VI국왕의 행복해 보이는 가족사진이 많은 곳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Morocco에서 13일째 여행지인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Essaouira에 오후에도 도착해

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곳에서의 일정을 시작하려는 데 갑자기 여행 Guide가 심각한 얼굴로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제 공항이 있는 Casablanca로 돌아가라는 여행사 본부로부터 지시가 왔다고 모두 짐을 싸서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 Pandemic을 예견한 Miami에서 온 4명의 여행 동료가 먼저 Morocco를 떠났기에 15명만 Casablanca를 향해 아침식사를 마치고 마저 출발했다. 약 4시간 넘게

다. 저녁식사때가 되니 280개가 넘는 객실에 묶여서 짐으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기다리는 중에 동양계 젊은 여성이 자기 의견을 좀 들어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남아서 집에 돌아갈 길이 없는 모두의 목소리를 Facebook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자는 거였다. 그래서 우선 Lobby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Morocco Rescue Flight"란 Facebook Group을 만들어 올려서 도움을 청 하자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고 밤 10시에 모여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튿날, 오후 12시반에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흑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다. 새벽이라 공항이 텅 비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마스크를 쓴 사람, 코 밑에 걸친 사람, 아무것도 안 쓴 각각각색의 피부색을 가진 어두운 표정을 한사람들로 가득찼다. 우리는 Switzerland의 Edelweiss Airline으로 Zurich를 경유한후 United Airline으로 Washington Dulles로 가는 거였다. 마침내 우리 순서가 와서 Luggage를 Check In 하기위해 저울 위에 올려 놔는데 Ticketing하는 직원이 우리 이름이 Manifest에 없다고 한다. 잠도 안자고 아침도 못먹고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가.

주위는 수많은 사람들로 정신없이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 다른 쪽에서는 주먹으로 치고 받고 도망가고 하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수습하는 장면을 보며, 옛날이 월남전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는 Helicopter을 타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손을 뻗치는 TV News 장면이 생각났다. 그러는 중에 들리는 새로운 소식은 점점 더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얘기였다.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얘기는 Hotel도 닫았고 공항도 곧 Close 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간간히 쓸 수 있었던 Wi-Fi도 신호가 나리고 약해져서 접속이 됐다 안됐다 하니 iPhone으로 새로운 항공편을 찾는게 거의 불가능 했다. 그런데 마침 New York에 사는 딸에게서 관찮으나고 전화가 왔다. New York Times에 난 Morocco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고. 그때 부터 New York에 있는 딸이 여러 항공편을 알아주고 장거리 전화 통화지만 여러모로 도움을 해 주었다. 여러 번 Flight 가 취소되고 없어지는 걸 경험하며 아무 비행기라도 타고 Morocco를 탈출하겠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다 보다. 무슨 비행기라도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우리 부부도 집에 돌아갈 여러 방법을 찾던 중에 마침 다른 여행 Group에서 온 Washington으로 돌아가는 부부를 만났는데 비행기표를 구했다고 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아 같은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출발 비행장이 우리가 있었던 Casablanca가 아닌 약 3시간을 운전해 내려 가야하는 Marrakesh 여서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였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탑승하기위해 당장 떠나기로 하고 4명이 Van을 구해서 Mar-

rakesh로 향해 합승을 했다. 저녁에 어둠이 내릴 때쯤 Marrakesh에 가까워졌다. 주위에 상점들과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건물들이 보였는데 대부분이 불도 꺼져 있고 상점Shutter문도 굳게 닫혀 있어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예약해 놓은 Hotel은 몇일 전 이곳에서 이들을 묵었던 같은 Hotel이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운 Lobby에 혼자 앉아 있는 Receptionist가 식당은 Room Service 만 가능하고 모든 다른 Service는 안된다고 했다.

이튿날, 오후 12시반에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흑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다. 새벽이라 공항이 텅 비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마스크를 쓴 사람, 코 밑에 걸친 사람, 아무것도 안 쓴 각각각색의 피부색을 가진 어두운 표정을 한사람들로 가득찼다. 우리는 Switzerland의 Edelweiss Airline으로 Zurich를 경유한후 United Airline으로 Washington Dulles로 가는 거였다. 마침내 우리 순서가 와서 Luggage를 Check In 하기위해 저울 위에 올려 놔는데 Ticketing하는 직원이 우리 이름이 Manifest에 없다고 한다. 잠도 안자고 아침도 못먹고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가.

주위는 수많은 사람들로 정신없이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 다른 쪽에서는 주먹으로 치고 받고 도망가고 하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수습하는 장면을 보며, 옛날이 월남전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는 Helicopter을 타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손을 뻗치는 TV News 장면이 생각났다. 그러는 중에 들리는 새로운 소식은 점점 더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얘기였다.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얘기는 Hotel도 닫았고 공항도 곧 Close 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간간히 쓸 수 있었던 Wi-Fi도 신호가 나리고 약해져서 접속이 됐다 안됐다 하니 iPhone으로 새로운 항공편을 찾는게 거의 불가능 했다. 그런데 마침 New York에 사는 딸에게서 관찮으나고 전화가 왔다. New York Times에 난 Morocco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고. 그때 부터 New York에 있는 딸이 여러 항공편을 알아주고 장거리 전화 통화지만 여러모로 도움을 해 주었다. 여러 번 Flight 가 취소되고 없어지는 걸 경험하며 아무 비행기라도 타고 Morocco를 탈출하겠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다 보다. 무슨 비행기라도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우리 부부도 집에 돌아갈 여러 방법을 찾던 중에 마침 다른 여행 Group에서 온 Washington으로 돌아가는 부부를 만났는데 비행기표를 구했다고 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아 같은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출발 비행장이 우리가 있었던 Casablanca가 아닌 약 3시간을 운전해 내려 가야하는 Marrakesh 여서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였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탑승하기위해 당장 떠나기로 하고 4명이 Van을 구해서 Mar-

<다음호에 계속>



/ 여행기 /

양수진의 자전거 타고 고국여행 ①



양수진(간호 80)

첫째는 남북통일이다. 요즘 한국에 이슈도 많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바람을 가져본다. 외국 세력의 개입 없는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의 통일이길 바란다. 우리의 통일이길 바란다. 통일의 결과와 장애물에 관해 많은 이들이 이미 논의해왔고,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한다. 그리고 그 통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남북의 항구적 평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아는바 상식일 것이다. 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초석들로 남북의 이념적 갈등이 하나의 민족적 결합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하고, 남한의 내적 이데올로기 즉 "좌파"라는 물이해가 해소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계속되는 정치적 기반들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회가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중에 기다림이 된다.

이런 기대와 의미를 담아 집을 출발하여 LAX에서 인천공항에 새벽 5시 도착. 공항 철도를 타보았다.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는 내마음은 왜이리도 짠한지... 졸음에 지쳐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젊은이, 일렬로 줄서서 자기가 가야할 곳에 정확히 서서 셀폰에 눈을 고정시킨 사람들. 하

진 은정이가 자동차로 합류해 속소를 정하고 먹자 골목에서 간신히 식당을 찾아 저녁을 먹는데, 와우! 한우가 아니라 미쿠스라던데. 실망실망ㅋㅋㅋ 반찬은 아주 특이한 맛인데 유저칭을 많이 쓴단다. 물 맛도 특별했는데 헛개차라나... 은정이가 긴 담소를 나눈뒤 아침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잠에 빠졌다. 둘째날, 서울로 한옥펜션에 숙소를 미리 정해서 70 km달리는 거리다. 5시간 잡고, 오전에 용문산 자연 휴양림을 탐색하기로 했다.



지만 전철밖의 풍경은 옛사람의 시를 읊기엔 충분히 반가웠다. 곳곳에 쓰여진 시 문구들! 낙서가 아닌 시 문화라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합정동에서 자전거를 빌리는 시간이 지체되어 인천으로 가질 못하고 출발! 드디어 자전거 종주 남북통일!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

철벽식 백선배님이 합정자전거나라에 오셔서 함께 미사리까지 라이딩에 동참해주셨다. 자전거 시운전하다 파당, 백선배님 뒤에 가다 파당, 시퍼런 멍꽃이 온몸에 피어났지만 트레일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곳곳에 아름답게 꾸며진 꽃밭과 공원들! 평일이 라 사람도 많지 않고 날씨도 해바라기 마음을 잘 알아주어 적당히 시원하고 따뜻했다. 10월에 반팔에 반바지는 남가주 출신 나홀로였다. 미사리 제주밭집에서 먹은 갈치.전복 조림은 최고의 맛이였다. 손님도 없는데 정성이 느껴지는 푸짐한 밥상이었다. 백선배님과 작별하고 계속전진! 양평까지 잘 도착하여 미술관 앞에서 간호대 동기 절

자연휴양림은 용문산 정상에 올라가는 트레일 입구에 마련된 아름다운 자연과 인공의 조화였습니다. 가을 단풍을 한껏 즐긴곳이었다. 은정과 따로 헤어져 여주시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그냥 점심을 각자 해결하고 숙소에서 만나기로 하여 계속 갔는데, 철새 도래지이며 남한의 56번째 비경이라는 비내섬에서 서유숙 펜션에 가는 다리가 없어 멀리 돌아 가느라 결국 89km를 쉬지않고 달려야 했다. (애고~~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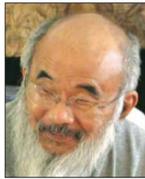
양평을 거쳐 여주까지 트레일은 강물을 따라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다. 너무 거칠지 않고 너무 웅장하지도 않지만 곳곳에 한국 자연의 작은 풍경화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다. 한편에는 절벽에 피어나는 돌과 색색의 단풍나무들, 그리고 그앞에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반대편 내가 타고 가는 자전거가 겹치면서 어느새 머리속의 산수화가 가득 그려지고 있었다. 트레일도 너무 잘 꾸며져서 한국말이 아닌 셀폰에는 Rider app을 깔고 국토종주 길

을 다운받아가니 길찾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론 강가에 아주 가깝게, 때론 조금 물이거면서 만들어진 트레일을 찾는것도 재미가 있었다. 비 올때는 강가 가까운 트레일을 수몰되어 트레일이 단하니 비오는 계절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했다.

지자체를 통해 가꾸어진 곳곳의 삶의 모습이 언뜻보기엔 좋아보였는데 가는길에 '농민 수당 가로채는' 그리고 쓰인 플래카드도 보이고, 까맣게 타버린 농부의 얼굴과 구부러진 허리는 변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로복이 필요한 곳은 농촌이다. 공대 선배님들! 그래도 두가지, 지방 자치체와 4대강 자전거길은 엄지척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가꾸어진 자연환경엔 누가와서 즐기는걸까?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한국 사회에 청년실업이 얼마나 되는 현실일까 하는 의문이 뇌리에 스쳤다. 이전엔 교통수단의 한계로 와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을 잔차타고 즐기는 이 멋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기분였다. 자전거 트레일을 따라 심겨진 단풍과 은행나무들, 낙엽들!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들... 한국의 강은 보물이다. 금강산에서 시작한 강물을 따라 북으로도 가보고싶었다.

셋째날이다. 오늘은 새도 넘어가기 힘들어 쉬어 간다는 문경새재 길을 자전거로 타는 날이다. 수안보를 거쳐 소조령과 이화령을 갈수 있을까? 하도 힘들다는 말을 들어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의 500마일을 자전거로 달릴 때보단 더 쉽고 소소한 작은 재미가 행복을 채웠다. 서유숙 한옥 펜션에서의 아침은 지저귀는 새소리로 시작되었다. 화려하지 않게 멋진 아침상을 차반에 손수 가져다 주신 주인 아주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장인 정신으로 삶을 살고 계신 듯 했다. 곳곳에 군형있게 아름다운 조경과 실내장식이며, 감나무 하나도 일년을 고민하여 심었다는 종가집 중부의 감각이 남다른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고생도 많이 하신듯하여 힘껏 안아드렸다. ^^ 우리 차가 출발할때까지 서서 기다리시던 그분이 댜 아쉬운듯 잠깐기다리며 작고 귀한 선물을 들고 나오셨다. 마음이 깊은 분이셨다.

<다음호에 계속>



장소현 (미대 65)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옥경의 작품세계 ①

<1940-1985>

-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형언어 -

/ 동문작가 소개 /

한국 현대미술의 도입, 수용, 정착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초창기는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서양미술의 세례 속에서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찾아 확립해야 하는 혼란기이자 개척기였다. 따라서, 의식있는 작가들의 존재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최옥경도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최옥경의 작품세계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현대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시기를 거쳐, 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과정이 그렇다.

또 한 가지, 최옥경은 여성 예술가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최옥경이 독자적으로 성취한 예술세계와 더불어 여성예술가로서의 선구적 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옥경은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 윤석남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여성미술가의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과 희생 덕에 오늘날 한국 미술계의 '여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45년의 생애를 뜨겁게 소진한 한국 색채추상의 대표작가 최옥경. 대담한 선과 강렬한 색채, 격렬한 붓질로 내면의 열정을 분출한 서양화가, 미국 페미니즘 화가 조지아 오키프를 좋아했으며, 한국적 미감에 근거한 색채추상을 실현한 여성작가, 두 권의 시집을 펴낼 정도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시인화가..." <동아일보> 기사에서

최옥경의 경우는 추상표현주의나 그 이후의 미국 현대미술과 문화적 수용돌이를 미국 현지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자기 정체성 찾기에서 혼란과 방향의 힘든 시기를 거쳐야 했고, 그런 어려움이 귀국 후의 작품 활동에서 '한국적 추상미술을 찾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찾아냈다.

최옥경의 작품세계는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유학 시기 (1963-1971)

서울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생활을 한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최옥경은 1950년대 미국 화단을 휩쓸었던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다.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잭슨 폴록, 윌렘 데 쿠닝 등의 작품을 접하면서, '액션페인팅'



◀<지화상>, 1969, 종이에 콘테 ▶<학동마을>, 1984, 캔버스에 아크릴 <사진: 최옥경 유족 제공>

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최옥경은 한스 호프만, 마크 로스코, 프랜시스 베이컨 등 많은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유학 초기의 작품들은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붓질과 원색의 색채가 강한 추상표현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옥경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형태를 찾으려했다. 이러한 작가정신은 그 후의 작품세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추상화이면서 구체적인 메시지로 말을 거는 것이다.

"내 작품은 추상표현주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작품들이지만, 미국에서 수학하며 창작을 하는 동안 추상표현주의는 즉흥적이고 표현도 자유스럽지만 일말의 허무감을 안겨다 주었다. 그래서 나는 추상표현주의를 영

두에 두면서도 형태를 찾아내보려고 하였다."

"나의 작품들은 단순히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온 순간의 경험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다"라는 말도 했다.

■문화 충격과 정체성 확립

최옥경이 유학생활을 하던 1960년대 미국은 반전, 반차별 운동이 활발했고, 여성이나

1972년 서른세 살의 최옥경이 한국에 와서 펴낸 시집 <낮 설은 얼골들처럼>에 수록된 시들에는 말을 잊어버린 병어리 아이, 길 잃은 아이, 이름 없는 아이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바로 화가 최옥경의 유학시절 심경을 생생하게 그린 내면 풍경이자, 자화상이다. 이때의 좌절감과 문화 충격을 더 강하게 표현한 작품도 있다. <항수>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인적도 끊어진 도보엔 달빛만이 하얗고
나 홀로 여기 이렇게 유배되어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말을 걸다, 현실에 대한 발언

이 무렵 최옥경은 정치적, 비판적인 메시지를 과감하게 드러낸 구상화도 많이 그렸다. 내면의 고독을 넘어 사회와 정치에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이 작품들은 최옥경 작품세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 작품들은 1960년대 미국의 학생운동과 반전 분위기 등에 심정적, 정신적으로 동참했음을 말해준다.

<Who is the Winner in This Bloody Battle>(1968)과 <인종차별을 멈춰라. Stop Segregation>(1968) 같은 시적인 제목의 작품들은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기 위해 거리의 그라피티나 프로파간다 포스터처럼 대담한 흑백의 대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구상화들은 최옥경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화가 최옥경(1940~1985)

어려서부터 미술에 천재적 재능을 보여 김기창, 김병기, 김홍수, 장운상, 정창섭 같은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에게 교육받으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1963년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그해 미국으로 유학, 클렌블록 미술아카데미, 브루클린 미술관 미술학교, 스크리건 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 뉴햄프셔 대학, 애틀랜타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1978년 귀국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영남대학교 덕성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전(1987)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에서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파리 비엔날레 등 수많은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5년 작업실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

이처럼 낯설고 큰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 소화하고,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최옥경은 이때의 정신적 고뇌를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 음악칼럼 /



김영석 (음대 74)

Gustav Mahler와 그의 여름 오두막집①

번째 오두막집이 있는 Steinbach am Attersee 로 향했다. 그곳은 잘츠부르크에서 약 45km정도 떨어져 있는데 비엔나에서는 잘츠부르크 쪽으로 약 25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말라의 첫번째 여름 오두막집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잘츠카머구트

해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산, 절벽, 들꽃, 호수, 돌, 동물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교향곡 안에 다 집어넣었으니 경치는 볼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진 곳이기도 하다.

말라의 제3번 교향곡은 6개의 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악장마다 서술적인 제목

Villa에서 산속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작곡을 위한 오두막집을 같이 지었는데, 1900년에 시공해서 1901년에 완공되었다.

1902년 말라는 출중한 재능과 뛰어난 미모를 지닌 19살 연하의 Alma Schindler와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Maria Anna와 Anna Justine를 낳으면서 그의 평생에 가장 행복



첫번째 오두막집

두번째 오두막집

세번째 오두막집



첫번째 오두막집의 피아노, 말라가 쓰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Gustav Mahler (구스타프 말라)

(Salzkammergut)의 작은마을 슈타인바흐(Steinbach)에 있는 오두막집이다. 오두막집은 호텔 Föttinger 로비에서 열쇠를 받아서 뒷문을 거쳐 해변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아테(Attersee)라고 불리는 호수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Attersee는 Salzkammergut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이다. 지난 몇년 동안 여름에와서 작곡을 하던 말라를 위해 호텔주인이 뒷뜰호수가 보이는 곳에 오두막집을 지어 주었다 한다. 방 한개의 조그맣고 단순한 구조이며 책상, 의자 그리고 피아노가 전부이다. 1891년부터 7년 장기계약으로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된 구스타프 말라는 이곳에서 교향곡 제2번 "부활", 교향곡 제3번, 그리고 초기 교향곡에 많은 영향을 끼친 "Das Knaben Wunderhorn"(소년의 요술피리)의 일부를 작곡 하였다. 말라의 Assistant Conductor로 일하던 Bruno Walter가 여름에 이곳을 찾았을 때 자신이 작곡하고 있던 교향곡 3번에 대

을 붙여 놓았다. "초원의 꽃들이 내게 들려주는 것" 2악장의 부제는 말라의 음악과 그 속에 녹아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잘츠부르크 음악제가 끝나고 다음 행선지인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로 가는 길에 말라의 두번째 여름 오두막집에 들르기로 했다. 구스타프 말라의 두번째 여름 오두막집은 Maiernigg am Wörthersee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Klagenfurt에서 호수 쪽으로 약 10km정도 떨어져있다. 이곳에서 슬로베니아 까지는 약 한시간 정도의 거리다.

말라는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7년 계약을 마치고 1897년, 약관 37세의 나이로 당시 유럽 최고의 오페라극장인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 겸 지휘자가 되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말라는 이곳 Wörthersee라고 불리는 호숫가에 Villa를 지으면서



Wörthersee 호수에 있는 말라의 여름 별장

한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운명의 시샘일까? 1907년 그렇게 사랑하던 큰딸 Anna Maria가 이곳에서 성홍열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일하면서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완벽주의와 타협을 모르는 태도 때문에 단원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다음 해에 그는 여름별장과 두번째 여름 오두막을 팔아버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말라의 교향곡 4번, 5번, 6번, 7번, 많은 부분의 8번, KINDERTOTENLIEDER, Rückert Lieder 와 Das Knaben Wunderhorn의 일부도 두번째 오두막에서 작곡되거나 마무리 되었다. 1904년 여름, 말라가 <죽은아이들>을 그리는 노래>의 완성된 악보를 알마에게 보여줬을 때 그녀는 경악했다. 알마는 셋째 곡 '네 엄마가 문으로 들어설 때'에서 그가 절절하게 묘사한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자신처럼 느껴져 불길하다며 화를 내었다. 알마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고였을까? 운명의 장난인지, 공교롭게도 이 연가곡을 완성한 3년후 1907년 7월 12일, 그는 사랑하는 딸 마리아가 죽는 비운을 맞는다. 알마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이후 말라와 알마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다음회에 계속>

2019년 8월 잘츠부르크 음악축제에 참가하고 있던 나는 음악회가 없는 날을 골라서 첫



장원경(미술 73)

/ 삶과 에세이 /

지난날 영광 잇고 신인의 자세로

이순(耳順) '귀가 순해진다'는 예순도 한참 지난 이즈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지나온 삶을 자주 되돌아 보게 되는 것 같다. 곱이곱이 이어진 삶의 여정 속 맞닥뜨렸던 갈림길에서 내렸던 선택들로 점철된 길다면 길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나름 감회가 깊다.

“더 늦기전에 하고 싶었던 것 해보지 그래?” 어느날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에 혹시라도 맘 바뀔까 서둘러 남가주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Long Beach) 대학원 3-D Metal 전공에 진학하게 되었다. 미대 졸업 후 두 번째 ‘맞선 남(男)과 결혼하여 유학오는 기분으로 영검결계 시작한 이민생활이 15여년이 지나 어느덧 40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었다. 계획에 없었던 지난시간, 공간과의 단절에 당황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바빠 많은 설비와 도구가 필요한 금속 작업은 당연히 계속할 수 없었고 학업을 위해 시작한 몇 번의 비즈니스 경영이 생활의 방편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미안한 나머지 나름 결혼 초에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 학업은 늦게 시작한 만학도인 주제(?)에 여러면에서 대책이 없어 17-25학점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M.FA(Master of the Fine Art) 학위를 60여 학점을 수강 하느라 장장 6년이나 걸려 졸업하고 보니 ‘나자신이 스스로 무슨 미친 짓을 한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게다가 어렵게 들어간 메이저 갤러리에 훌륭한 작품은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다. 수십만불을 호가하던 비즈니스를 중임원에게만 맡겨놓아 문 닫게 되었는데 1달러도 벌 길이 없는 것이다! 그간의 그러한 사정과 때 맞춰 마침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회사에서 지拂하는 이삿짐에는 작품과 도구들만 싣고 우선 전시회라도 해볼까하는 마음으로 한국생활을 또 다시 큰 대책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있을 것이 없으면 용감하다고 우선 한국 화랑들 중 제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현(現)화랑에 전시 신청을 해보았으나 나이만 원로급이고 경력은 약한 이유인지 대답이 없어 필요한 경력을 쌓으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일본 전시를 먼저 갖기로 했다. 두번의 일본 방문 결과 다행히 동경 긴자의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큰 조각작품 특성상 일본에서 전시 후 한국으로 다시 가져가 전시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큰 과정 자체는 이전의 그 무모한 결정들과 별다름없이 철저히 비실속적인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묘한 인생의 비논리성이, 그 무모하게 추진한 동경전시회에서, 일본작가를

유지 하려고 온 2002 부산 비엔날레 조각 심포지엄 전시감독과 그의 초대 리스트 1순위의 세계적인 분수 조각가이자 일본 현대미술의 중심, 모노파의 수장인 세키네 노부오 작가가 갤러리 관장 초대로 참석하여 만나게 되어 나와 함께 동반 초대가 성사되는 놀라운 반전드라마를 쓰게 될 줄이야!



▲정면 ▶후면
‘타’로서의 몸- 합(合) Body as a site- Synthesis / 8.5 x 2.9 x 3.6(m) / Bronze, Steel
2002 부산 비엔날레 조각 심포지엄 초대작

그러나 20여명의 한국, 외국의 기라성과 같은 작가들 사이에서 작업하는 과정은 개척지인 지방 특유의 지역주의, 텃세, 남존여비등과 맞물려 매일이 위축되고 힘들었다. 주최기관인 부산시 공무원들은 제한 규격을 훨씬 넘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작품을 고집하는 유명하지도 경력도 전무한 여성작가인 나의 작품을 제작비를 핑계로 돌려 놓으며 제작 자체가 불투명한 위기도 여러번 있었지만 편견없이 밀어준 전시감독과 작업 전 과정을 맡기지 않고 직접하는 작업 태도에 감동한 제작스텝들의 도움으로 (비록 섬을 연결하는 작품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전장 10m 총길이 20m의 제한규격을 훨씬 넘는 대작으로 제작 되었고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었다.

2002 부산 비엔날레 조각 심포지엄 웹사이트 표지작으로 선정된 그 작품(‘타’로서의 몸- 합(合), Body as a site-Synthesis)은 지금 부산시 서구청에서 구입하여 암남조각공원 안의 송도 케이블카 정문 앞에 영구 설

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교두보로 조각가로 활동하며 십 수년에 걸쳐 두번의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초대받고 한국 전역에 12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아카데미한 활동과 상업적인 활동을 병행하는 모든 작가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작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스튜디오 작업으로도 동경, 서울 두번의 주류 갤러리 개인전과 유수의 초대전에 초청되고 소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행보에 비해서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성과는 대학원 재학 시절 졸업 후 미래가 불투명한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돈이 안되어 다들 떠나버린 조각전공 실기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던 길었던 인고의 시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평소엔 경험 못해 본 규모의 큰 스케일의 작품 기회가 와도 선택 받아 드릴 수도, 또한 감당하지도 못 했을 것 같다.

물론 더 큰 성과를 거둔 작가들도 많겠지만 척박한 현실에 비해 치열한 경쟁구도인 미술계에서 이론 결과이기에 계획할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도 이를 수 있다는 보장

도 없는, 그래서 자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인도하신 작은 기적을 경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던 초기 한국생활 중에도 각 대학에 교수로 포진해 있는 동기, 선배배들이 강사로 불러주어 경기대학, 세종대학, 부산 동의대학등에서 모국어로 원없이 가르치는 보람도 가질 수 있었다. 속칭 일류대학도, 소득이 보장되는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닌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트리플 마이너리티(아시아인, 나이많은, 여성)로서 이민생활을 하며 미술전공을 했던 나의 아픔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쓰여 가슴으로 가르치는 나의 강의에 제자들은 교수평가로, 향상된 실력으로 보답하여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바쁜 한국 활동 때문에 미뤄왔던 미국 활동을 위해 또 다시 작품과 도구들이 전부인 이삿짐을 싣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정확히 18년 만이다. 미국에선 다시 신인의 자세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다행히 원하던 major 화랑인 Thomas Paul Fine Art에서 초대전, San Diego City College에서 6인전으로 미국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개인 스튜디오 작업으로도 동경, 서울 두번의 주류 갤러리 개인전과 유수의 초대전에 초청되고 소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행보에 비해서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재앙으로 불러질 시기에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작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사의 위함을 걱정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전시회는 연기되거나 취소 됐고 뒤 따라 올 불경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회복은 가장 더디게 오는 예술계의 속성상 그 피해 정도는 어느 분야보다 극심할 것이다.

정답없는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한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살아 있는 한 계속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속고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허락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김영옥(간호 69)

/ 단상 /

기억은 기억하는 대로

캐나다의 루이스 호수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여행을 다닌 곳 중에서 내가 제일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 곳이다. 20여 년 전 처음 그 호수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꿈쩍할 수 없었다. 충격이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좋겠다,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이었고, 꽤 늦은 오후였다. 시선이 가는 저 먼 곳, 눈을 껌안은 높은 산은 그 몸을 반쯤 어스를 푸른 빛이 도는 호수 위에 놓고 있었다. 앞의 낮은 산들이 양옆에 늘어서 큰 산을 호위하며 물 위에 그림을 그렸다. 호수 위 음영에 따라 무채색보석이 제각각 다른 채도로 빛을 내고 있었다.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눈 덮인 산에도 착할 수 있을 것같이 길이 보였다.

호수 위로 보이는 듯, 사라지는 듯하며 가는 눈발이 조용히 날렸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그곳에서 나도 잠시 그 일부가 되었다. 적막한 스산함, 매혹적인 싸늘함, 호수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여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에게 그때의 감동을 전해서인지 주위의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그곳을 찾게 됐다. 오랜만이지만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여 몹시 설렘. 호숫가를 오래 지켜보고 싶어서 숙소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잡았다. 호숫가 근처로 나가기 우선 보이는 것이 커다란 주차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었다. 저녁이 되기를 기다

렸다가 다시 찾은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 영기는 발걸음이 수선스러웠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빨간 카누들이 물 위



캐나다 루이스 호수(Lake Louise)

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쉬지 못하는 호수는 피곤해 보였다.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내리는 기운을 받아 안았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보이지 않았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호수를 보러 나왔다. 새벽부터 몰려든 사람들과 관광버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순간 호수가 지난밤 잠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

다.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호수 가운데로 나가면 숨을 쉴 것 같았다. 카누가 놓여 있는 쪽으로 갔다. 카누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걱정되지도 않았다. 보트 타는 걸 도와주

어느새 호수 안으로 꽤 많이 들어왔다. 물결은 잠잠하고 설산은 눈앞에 있다. 노를 놓고 가만히 있으니 물결에 배가 가볍게 흔들린다. 머리가 맑아진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얼 하고 있나, 번덕 머리를 치는 게 있었다. 결국에는 나 역시 호수를 괴롭히는 무리에 끼어들었음을 깨닫는다. 물 위에 떠다니며 휘젓기까지 했다.

겨우 보트 선창(Dock)에 도착하여 내리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팔도 아프다. 호숫가에 많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남편이 앞서 걸고 있다. 내려앉은 여개가 구부정하고 뒷머리의 머리카락도 엉성하다. 자신 있게 노를 젓던 남자는 어디로 갔나? 창경궁 연못의 목선 위에 앉아서 젊은 남자를 바라보던 나도 이제는 없다. 내가 아는 그 호수는 마음속에만 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니 호수가 풍경이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보다.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기, 가슴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간직하기, 이것이 내가 변함 없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인가 보다.

/ 단상 /

COVID-19와 ‘집콕’



이범모(치대 74)

어느덧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다. 초기에 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이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국에서도 Pandemic의 조짐이 보이자 3월 중순에서야 각 주마다 Stay-At-Home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고 치과병원 문을 닫고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집에 콕 박혀 있는 소위 ‘집콕’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을 잘 하면 곧 안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도에 영원히 서 있는 기분이다. 이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외치며 긍정의 힘을 믿어 본다.

초기의 집콕 생활은 나름 너무 좋았다. 늦

잠자기, 책읽기, 드라마 보기, 스트레칭, 가벼운 동네 산책 등. 하지만 예전에는 그토록 원했던 long vacation이 지금 나에게 너무 풍성히 주어졌건만, 과연 집구석에서 뭘 더하며 어떻게 이 loooong vacation을 잘 보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방구석에 방치된 기타가 눈에 들어왔다. 수년 전 처음으로 개인 레슨을

몇 달 받고 선생님의 은퇴로 말미암아 그만둔 후 먼지만 쌓인 기타와 내 손가락! 다시 잡아보니 잘 될 턱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바로 YouTube지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황용우씨의 ‘오늘부터 기타’를 물론 공짜 수 강하며 시간도 보내고 실력도 쌓고 치매

오늘, 나는 배 선미에 앉아 앞만 보고 나간다. 예전 같지 않고 두렵다. 뒤에 앉은 남편이 방향을 조정한다는데, 뒤돌아볼 수가 없다. 조금만 고개를 틀어도 내 무게 때문에 배가 흔들린다. 불안하여 노를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가며 힘을 써보는데 배는 갈지자로 간다.

어느새 호수 안으로 꽤 많이 들어왔다. 물결은 잠잠하고 설산은 눈앞에 있다. 노를 놓고 가만히 있으니 물결에 배가 가볍게 흔들린다. 머리가 맑아진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얼 하고 있나, 번덕 머리를 치는 게 있었다. 결국에는 나 역시 호수를 괴롭히는 무리에 끼어들었음을 깨닫는다. 물 위에 떠다니며 휘젓기까지 했다.

겨우 보트 선창(Dock)에 도착하여 내리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팔도 아프다. 호숫가에 많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남편이 앞서 걸고 있다. 내려앉은 여개가 구부정하고 뒷머리의 머리카락도 엉성하다. 자신 있게 노를 젓던 남자는 어디로 갔나? 창경궁 연못의 목선 위에 앉아서 젊은 남자를 바라보던 나도 이제는 없다. 내가 아는 그 호수는 마음속에만 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니 호수가 풍경이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보다.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기, 가슴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간직하기, 이것이 내가 변함 없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인가 보다.

예방까지, 일석삼조랄까. 환자들 보면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 왔지만 이렇게 빈둥거리며 취미생활만 하는 요즘의 상황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민족 중흥...” 을 외우고 외운 그런 세대가 아니었던가!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찾아내어 즐기면, 앞으로의 삶에 윤택유가 되는 예기치 않은 COVID-19 Pandemic의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겠다. 학·전자와 같은 부작용 말고 말이다.

곧 Stay-At-Home 명령이 걷어지고 COVID -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이 시대를 일종의 즐거운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이 선회의 ‘에게’를 연주하며 불러본다. “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



박준창 (인문 79)

/명작 다시보기/

The English Patient



향기 있고 깊이 있는 소설을 한 권 읽은 느낌이다. 철나의 재미를 느끼는 대중 소설이 아닌 읽을수록 빠져 들어 가고, 읽은 후에도 느낌이 오래 남아 있는 그런 잘된 소설 말이다.

시작부터 범상치 않다. 누군가가 붓으로 뭔가를 그리는데 무슨 형상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다. 도마뱀 같기도 한데 사람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무늬인가?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면서 비행기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어디 위를 날아가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초콜렛을 뿌린 노란 식빵 위를 나는 것 같아서 그냥 환상적으로 처리했구나 하는 순간, 오래 사막 위를 날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래사막이 그렇게 특이할 줄이야. 작은 모래 언덕들이 수 천, 수 만개가 있고 작은 언덕들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가 꼭 초콜렛 같다.

곧 비행기를 보여 주는데, 흰색 2인승 비행기다. 앞자리에 잠들었거나 실신해 있는 듯한 여자가 타고 있고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는 곧 독일군의 포격을 받고 추락한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남자는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아랍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로 이송이 되는데 이제서야 1944년 10월 이라고 시대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는 무렵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한다 (특이하게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데 유독 자신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불러지는 게 "영국인 환자"이다. 이 "영국인 환자"를 비롯해서 다른 부상 중인 군인들을 치료해 주는 간호사 중 한 사람이 "해나 (Hana)" (Juliette Binoche 분)인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이다. 그녀의 간호 부대는 전쟁이 끝나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영국인 환자"를 버릴 수 없는 그녀는 폐허가 된 수도원을 찾아 그곳에 이 "영국인 환자"를 놓고 나중에 그녀 부대에 합류하겠다고 한다.

이 "영국인 환자"의 과거의 기억들과 수도원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두 불청객 그리고 해나의 생활이 이 영화의 큰 줄거리를 이룬다. 이 "영국인 환자"는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고 지도를 만드는 "올마시" 라는 형거리

<5월호에 이어서>
위안스카이의 간섭 하에서 민비 척족은 친청 정책을 펴고 세도를 부렸는데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만연했다. 가렴주구란 돈을 주고 지방의 관직을 사서 부임해서는 갖가지 못된 수단으로 농민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돈을 뜯어 내 더 좋은 자리를 사는 매관매직의 극단이다. 그러다 보니 한 고을에 수명의 현감이나 군수가 있었다고 한다. 실권을 가진 현감이나 군수가 있는가 하면 명예직의 현감과 군수가 있었다. 거기에는 일상(日商)과 청상(淸商)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약덕 상행위를 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활은 말도 안이었다. 건디다 못한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화전민(火田民)이 되거나 화적(火賊)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는데, 전라도 고부(高阜)에서 일어난 봉기는 동학교도(東學敎徒)들의 호응을 받고 민란(閔亂) 동학농민군란 또는 갑오농민운동)으로 확대되어 전주성이 이들에게 함락되었다. 고종은 하는 수 없이 이 민란의 진압을 위한 원정군의 파송을 청에 요청하였는데, 이들이 도착하자 일본도 일본 공사관과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8



김동한 (문리 53)

천여 명의 대군을 조선에 상륙시켰다. 조선의 조정은 동학농민군과 화약(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은 상태에서 양국 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는데, 청은 물리갈 기세를 보였지만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고는 1894년 7월 23일 아침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으로 하여금 섭정토록 하여 민씨 척족의 벼슬아치들을 추방 유배시켰다. 일본군과 같이 들어온 오도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는 5개조로 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고종에게 제출하고 조선의 내정개혁 단행을 요청했다. 이 개혁안을 놓고 있었던 전 현직 대신들이 모두 모인 어전회의에서 모두가 합구하고 있는데 김홍집만이 그 안

을 받아드리고 조선도 이제 근대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7월 27일 고종은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개혁을 단행하도록 했다.

일본군은 아산(牙山)에 상륙해 있는 청군을 우중 야밤에 습격하여 소탕하였고, 청군을 살고 오는 수송선을 풍도(豊島) 근처 바다에서 침몰시키고는 8월 1일을 기해 청나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다. 조선반도에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청일 간에 전쟁(청일전쟁)이 발발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일본군이 대승을 거둬들었다. 일본군은 9월 중순 청군 1만 수천명이 영을 치고 있는 평양성



중화상을 입은 주인공을 아랍 유목민들이 구조해 낙타 등에 태우고 이송하는 장면. 왼쪽 두번째 낙타 등 위 길쭉한 형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주인공.

의 귀족으로 백작 칭호까지 있는 아주 지적이며 교양있는 인물이다.

올마시 백작은 다른 동료 학자들과 함께 사하라 사막지도를 만들고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발굴 중이었는데, 여기에 크로포트 (Croft) 부부가 합류한다. 크로포트의 부인이 바로 첫 장면에서 비행기 앞에 앉아 있던 여자 캐서린(Katherine)이다. 두 사람의 케미가 처음에는 안 맞는 듯 했는데, 첫눈에 반해 버린 올마시가 짐짓 감정을 숨기느라고 하는 부자연스런 행동들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져 든다. 이쯤 되어서야 관객들은 깨닫는다. 결국 이 영화도 남녀간의 사랑 영화, 불륜이라고는 해도, 남편 크로포트가 그녀를 사랑하지만, 캐서린은 이 사랑에서 헤어 날 수가 없다. 불륜이지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슬프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불륜이어서

인가?). 그리고는 역시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사하라 사막을 누비면서 만든 지도가 연합국 (특히 영국군) 과 추축국 (특히 독일군) 모두에게 엄청난 전쟁 작전의 자료가 되어 버린 것. 작가는 이 지도로, 크게는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개인들의 꿈과 사랑과 희망은 송두리째 엉망이 되어 버린다.

올마시 백작은 실존 인물로 실제 사하라 사막 지도 제작에 참여했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인 부부가 있었고, 그 중 와이프는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너무나 지적이며, 알아 듣기 쉬운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올마시 역의 Ralph Fiennes와 또 다른 지적인 배우로 실제, 영어, 불어를 다 구사하는 Kristin Scott Thomas의 연기 조합이 좋다.

/역사칼럼/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③

(平壤城)을 함락시키고 도주하는 청군을 압록강을 건너 추격하고 라오동반도(遼東半島) 전역을 점령했다.

영의정 김홍집은 곧 바로 개혁방안의 비상 입법기관으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자신이 총재가 되고는 20명의 회의원을 임명했는데, 친일 급진 개화파 인물이 다수였지만 대원군파 인사도 있었고 김홍집을 비롯한 중도 개화파가 포함된 범정치 입법 기관이었다. 기초의원으로는 유길준(兪吉濬), 김가진(金嘉鎭), 그리고 안경수(安敬壽)를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개혁방안을 성안하고 심의하는 회의에서 실명토록 했다. 유길준이 기초의원으로서 임명된 것은 그가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는 게이오이주쿠(慶應義塾)에서 유학하였고, 1883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미국을 예방하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보스톤대학(Boston College)에 입학하여 1년간 수학하고 유럽을 둘러서 돌아온 당시 누구보다도 구미의 문물에 밝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미 자세한 내용은 저서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집/

시나무 접목



장욱일(공대 59)

과학자 장욱일 동문이 최근 시집 '시 나무 접목'을 발간했다. 이 시집의 대표적인 작품 '별의 자손을 포함해 세상은 밝단다' '영화나 트롬' '그린 에



너지 공장' '안공 눈갈' 등의 시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가 과학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호수의 뜬 달이라는 뜻의 '호월(湖月)'이란 필명으로 출간한 시집에서는 과학과 문학을 융합해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저자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학관련 내용이 들어있긴 해도 딱딱하거나 난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가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집에는 인터넷 시 사이트에 실렸거나 월간 '우리시'에 게재했던, 또 현지 지역신문에 연재했거나 동창회보 등에 기고했던 시들이 실렸다. 특히 저자가 눈을 감고 나선 우주여행을 그

대로 옮겨 놓은 듯한 시가 눈에 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거주하는 저자는 '자연과 시의 이웃들'이라는 카페에서 '공관시인'으로 불린다. 스승인 임보 시인은 호월을 '검증된 공관시인'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시집에 실린 '아름과 슬픔끼리', '달과 선인장 꽃', '바람의 등대', '구절초' 등의 시를 읽으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60년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정착했다. 포드 자동차 선임 책임 연구원, 미국 레이저학회 지부장에 이어 로런스 공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자서전/

The Way of The Dentist



김성열(치대 61)

김성열(치대 61) 동문 치과의사로 살아온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쓴 자서전 "The Way of The Dentist"를 발간했다.



"The Way of The Dentist"는 김박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한 '인생 모음집' 정도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좀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슈와 내용들이 접목 되면서 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가 이 책에서 공유하는 40여년간의 경험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는 이 필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연유이 있는 치과의사들에게는 함께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스태프 관리, 완벽하게 크라운을 씌우는 세부적인 내

용까지 이 책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은 집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치과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치과치료 개념과 방법을 개발, 치과 학회에 발표한 글들을 한데 모은 글이다.

특히 김성열 동문은 가정용품으로부터 치과기구재료 등 다양한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워싱턴주에서 치과진료에 힘쓰고 있다.

/인문/

동아시아는 인류 문명·문화의 어머니



최용완(공대 57)

건축가이자 시인, 수필가인 최용완 동문이 저서 '동아시아는 인류 문명·문화의 어머니'를 발간했다.

최 동문은 미주 문협 신인상/ 한국문예지 자유문학 신인상/ 한국수필지 에세이포레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 및 공로상 수상했다. 그는 저서 '한국 건축 문화사 (1965)' "새로운 눈에 보이는 세계"(2006), 무등산 가을 호랑이를 출판했다. 최 동문은 한국 국보 제1호 승례대 중수공사에 참여한 후 평생을 '동아시아 세계문명의 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다.

<책 내용>
10만여년 이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현대 인류는 해 뜨는 동쪽으로 바닷길 따라 5만 년 전에 동아시아에 이르고 처음으로 겨울철을 맞았다. 겨울동안 살아남으려 한반도 남단에서 농사짓는 마을이 나타났다. 한반도에 농사 지은 유적은 12000년 전의 유적에서 발굴되며 서남아시아는 5000년 전이다. 멀리서 바위를 끌고 와 고인돌을 짓기 시작하였다. 쇠로 배를 만들어 이미 열린 바닷길 따라 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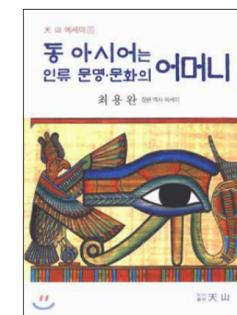
시아 대륙으로 분포되었다. 스톤헨지를 포함하여 전세계 9만여곳에 유적을 남겼다. 만주지역 선탄불에서 청동 기구를 만들었다. 요하지역 고인돌 문화에서 처음으로 금속문명에서 시작하였다.

바위에 그림을 그려 문자가 발달하였다. 인더스강의 하라파 문화, 서남 아시아의 공사에 참여한 후 평생을 '동아시아 세계문명의 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다.

동아시아 문화는 고인돌 마을처럼 바닷길 따라가서 지중해에 이르고 아랍인과 아프리카 흑인의 노동력을 맞아 이집트

문화를 건설하였다. 한반도 민족의 고조 선은 고구려와 함께 하나라 상나라로 이어졌다가 주나라 때부터 중화족과 동이족이 융합한 동아시아 역사가 시작됐다. 한반도 민족의 핏줄이 만주, 몽골, 티베트로 이주해 들어가 훈족은 비단길을 열어 지중해 지역 서로마를 허물고 동로마를 세웠다. 한반도 민족 칭기즈칸은 비단길 따라 인류역사의 가장 큰 몽골제국을 세우고 유럽을 암흑기에서 일깨워 현대 세계사가 시작하였다.

유럽은 동아시아의 지식을 배워 세계침략에 나섰다. 문예부흥, 종교개혁, 산업혁명의 출산(Mound)을 돌산(Pyramid)으로 짓기 시작했다. 만주지역의 석탄불에서 금속 바퀴를 만들어 거마(車馬: chariot) 만드는 기술을 얻었다. 아틀란티스는 동아시아였다.



쟁하는 오늘에 이른다.

현대 인류는 이제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들어 인구폭발로 온 지구를 차지한다. "신은 죽었다."라고 반항한다. 식육이 왕성하여 온 지구 표면은 유기물질생산지가 된다. 사춘기 육체적 성장은 왕성한 의욕과 영성, 감성, 지성의 혼돈으로 폭력과 기싸움을 멈추지 못한다. 사춘기의 현대인류의 생산기능은 다음세대 아기를 출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시험과 아기의 생명력이 로봇의 체구에 결합되고 인공지능이 아기의 뇌에 주입되며 죽지 않는 우주 인류가 태어난다. 현대인류는 본능적으로 정성을 다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가정생활에 몰입하는 평화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우주세대를 걸러서 떠 보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19-2020 alumni association fee period.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address.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20-2021 alumni association fee period.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addres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showing donation options: 동창회 후원금 (Alumni Association Fee), 동창 회비 (Alumni Fee), 업소록 광고비 (Business Directory Ad), and 특별 후원금 (Special Donation).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Form for donor information including name (한글/영문), address, phone number, and department.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sta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www.taycoeng.com

/ 광고주를 모십니다 /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합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여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광고주를 모십니다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eter.com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렐 소아과
박범렐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내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의료 / 치과
/ 광고주를 모십니다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대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635-2700	hmchi876@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사대 72)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홍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백승원 위장내과
“위장내과만 전문 진료합니다”
원장 백승원 (의대 73)
포트리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에디슨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EVERLY CARDIOLOGY GROUP
김일명 M.D (의대 65)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글로벌 종합뷰티 업체 키스



Bring the Salon Home
KISS®

**“INNOVATIVE GLOVAL LEADER
 IN BEAUTY CARE”**



www.KISSusa.com

김광호(문리 62), 신규천(상대 73), 한규상(84), 김영훈(공대 93)